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07. **1** Vol. 181

www.bsculture.busan.kr

반갑습니다 _ (사)국제예술문화원 배혜경 이사장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_ 박물관 속의 국악

연극속으로 _ 연극과 옷



신년호 부록 2007년 탁상용 달력

 부산문화회관

2007

謹賀新年

문화의 향기가 그윽한 부산시민의
문화심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 콘서트”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바이올린 · 김영희

2007. 2. 8(목)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공동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 공연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6101~4 • www.bsculture.busan.kr

■ 입장권 ■ 균일 15,000원 ※ 정기회원 1인 4매까지 30% 할인 (홍보부 전화예약 후 입금 회원에 한함)

■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www.ticket365.co.kr

금 정/ 신나라레코드 부산대점 (부산대 앞 518-0686) 골든 악기사 (부산예고 앞 512-4295) 대연동/ 면학도서 (경성대 앞 623-9404)
해운대/ 해운대약국 (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비바체 클래식 (선프라자 1층 743-0003) 하 단/ 향학서점 (동아대 입구 204-9381)
남포동/ 문우당서점 (버스정류소 앞 245-3843) 남포문고 (호림빌딩 1층 245-8911~3) 덕천동/ 대한도서 (덕천교차로 332-7339)
서 면/ 영광도서 (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동보서적 (제일은행 옆 803-8000)



2007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KNN 신년음악회



소프라노 / 전지영
독일 오페라좌 주역 가수



바이올린 / 양경아
미국 맨하탄, 매릴랜드 탑위너



지휘 / 오충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2007년 2월 9일 (금) 오후 7:30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

2007년 2월 10일 (토) 오후 7:30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대표채널 **KNN** 예매 : 1577-7600 www.knn.co.kr 인터파크 티켓365

주관 : 벨칸또 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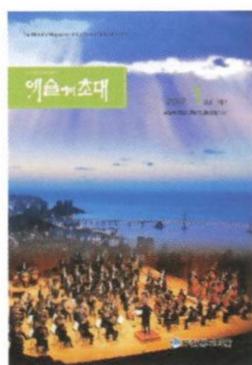
협찬 : 경남은행

CHOKWANG World Best **STX**
조광페인트

Contents

2007 · 01

- 06 부산문화회관 1월 공연 일정
- 10 신년사
- 12 신년시 | 새해 첫날 아침 · 양왕용
- 14 특집 | 부산시립예술단 2007년 신년 설계
- 24 반갑습니다 | (사)국제예술문화원 배혜경 이사장
- 26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유럽무대를 열광시키는 한국의 음악가들 · 이승주
- 30 어화등등 이야기 국악 | 박물관 속의 국악 · 홍희철
- 32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커튼과 비누 · 김형술
- 34 캠페인 1인 1기를 배웁시다 | 오카리나 이야기<5> · 박종근
- 36 연극속으로 | 연극과 옷 · 유상흠
- 38 그곳에 가면 |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서원
- 40 우리는 문화가족 | 부산팬플룻사랑
- 42 이 사람 | 부산미술협회 이사장 송영명
- 43 이 사람 | 부산연극협회 지회장 김동석
- 44 공연화제 | 2007 부산국제음악회
- 45 쉽게 듣는 클래식 | 소품 3 · 곽근수
- 46 부산시립예술단 관람가이드
- 50 1월 프로그램 가이드
- 64 새로 나온 음반
- 65 새로 나온 책
- 66 부산문화회관 소식
- 68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번지)
TEL. 625-8130, FAX. 607-6204
- 발행인 조병규 | 편집인 공영훈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6년 12월 25일
- 인쇄처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601-836 부산시 동구 초량 3동 1156-11번지)
TEL. 468-2468, 2757, FAX. 468-2515

※ 예술에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 표지설명 : 2006년 한해동안 다양한 활동을 선보인 부산시립예술단이 2007년 1월 5일 부산시립 교향악단 신년음악회로 2007년 첫 무대를 연다(사진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1월 공연일정

전시실

■ 전국부울경최고서화예술대전-대·중전시실

1월 8일(월)~1월 11일(목)

문의 김동준(806-4294, 019-546-9913)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안내 : 9쪽)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극장

MAIN THEATER

1	mon	
2	tue	
3	wed	
4	thu	
5	fri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07 신년음악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6	sat	
7	sun	
8	mon	
9	tue	
10	wed	
11	thu	제 1069회 MBC 목요일음악회 동아성악가협회 초청 '2007 신년음악회' 19:30 1만원 · 5천원/(사)문화도시 네트워크(760-1494)
12	fri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7회 정기연주회 '겨울 몽상'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13	sat	
14	sun	2007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부산 17:00 8만8천원 · 7만7천원 · 6만6천원 · 4만4천원/올리브 엔터테인먼트(02-569-4107)
15	mon	
16	tue	G솔리스트 첫번째 콘서트 19:30 2만원 · 1만원/G솔리스트(011-9520-4649)
17	wed	
18	thu	
19	fri	
20	sat	뮤지컬 '명성황후' 15:00, 19:00 9만9천원 · 8만8천원 · 7만7천원 · 5만5천원 · 4만4천원/소리엔터테인먼트(755-4545)
21	sun	뮤지컬 '명성황후' 14:00, 18:00 9만9천원 · 8만8천원 · 7만7천원 · 5만5천원 · 4만4천원/소리엔터테인먼트(755-4545)
22	mon	
23	tue	
24	wed	
25	thu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3회 정기연주회 신년음악회 '3색음악회 歌·舞·樂'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26	fri	
27	sat	2007 부산국제음악제 '가족음악회' 16:30 6만원 · 4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28	sun	
29	mon	
30	tue	2007 부산국제음악제 '축제음악제' 19:30 4만원 · 3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31	wed	

중극장

MEDIUM THEATER

- 1 mon
- 2 tue
- 3 wed
- 4 thu
- 5 fri
- 6 sat
- 7 sun
- 8 mon
- 9 tue **이아영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이아영(010-6657-9178)
- 10 wed
- 11 thu **어린이 뮤지컬 '빨간모자' 11:30, 15:30**
1만8천원 · 1만5천원/나눔기획(744-6997)
- 12 fri **어린이 뮤지컬 '빨간모자' 10:00, 11:30, 15:30**
1만8천원 · 1만5천원/나눔기획(744-6997)
- 13 sat **어린이 뮤지컬 '빨간모자' 11:30, 14:00, 16:00**
1만8천원 · 1만5천원/나눔기획(744-6997)
- 14 sun **어린이 뮤지컬 '빨간모자' 11:30, 14:00, 16:00**
1만8천원 · 1만5천원/나눔기획(744-6997)
- 15 mon **성교육 뮤지컬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10:00, 11:30, 15:30**
1만8천원 · 1만5천원/나눔기획(744-6997)
- 16 tue **성교육 뮤지컬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10:00, 11:30, 15:30**
1만8천원 · 1만5천원/나눔기획(744-6997)
- 17 wed **성교육 뮤지컬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10:00, 11:30, 15:30**
1만8천원 · 1만5천원/나눔기획(744-6997)
- 18 thu **성교육 뮤지컬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10:00, 11:30, 15:30**
1만8천원 · 1만5천원/나눔기획(744-6997)
- 19 fri **김성희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김성희(010-4844-7469)
- 20 sat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1 sun **부산 YMCA오케스트라 제 8회 정기연주회 18:00**
초대/장진(010-4579-0115)
- 22 mon
- 23 tue **2007 부산국제음악제 '스타연주자와 부산신포니에타와의 만남' 19:30**
3만원 · 2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 24 wed
- 25 thu **2007 부산국제음악제 '오프닝콘서트' 19:30**
4만원 · 3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 26 fri
- 27 sat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마당출판 '男공쥐vs팔쥐'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8 sun **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19:30**
1만원 · 5천원/정성철(011-565-8088)
- 29 mon
- 30 tue
- 31 wed **2007 부산국제음악제 라이징스타시리즈 '오현정 피아노독주회' 19:30**
균일 2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소극장

SMALL THEATER

- 1 mon
- 2 tue
- 3 wed
- 4 thu
- 5 fri
- 6 sat
- 7 sun
- 8 mon
- 9 tue
- 10 wed
- 11 thu
- 12 fri
- 13 sat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4 sun
- 15 mon
- 16 tue
- 17 wed **부산시립무용단 특별 공연 '우리춤 산책'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8 thu **부산시립무용단 특별 공연 '우리춤 산책'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9 fri **제 3회 킹스퀸즈 메트로음악원 정기연주회 19:00**
무료/김지영(010-7183-2927)
- 20 sat **백화아카데미 클래스 연주회 16:00**
무료/백화아카데미(011-574-0423)
- 21 sun
- 22 mon
- 23 tue
- 24 wed
- 25 thu
- 26 fri
- 27 sat **이루마 피아노 정기연주회 15:00**
무료/정희란(016-9669-1240)
- 28 sun **제 7회 'WoA!!!' 행사 13:00**
균일 3천원/백창수(010-6767-2226)
- 29 mon
- 30 tue
- 31 wed

부산시내 기타공연 ①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 문의 : 시민회관(630-5200)

1	mon	
2	tue	
3	wed	
4	thu	
5	fri	
6	sat	아가도스합창단 제 2회 정기공연 19:00 -대극장 유현두(600-7780) JJ 매직 콘서트 18:30 -소극장 균일 1만원/박준영(011-9038-8393)
7	sun	JJ 매직 콘서트 18:30 -소극장 균일 1만원/박준영(011-9038-8393)
8	mon	월요일영화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9	tue	
10	wed	가족뮤지컬 '번개맨의 밀림의 왕 타잔' 16:00 -대극장 3만원 · 2만5천원 · 2만원/(주)코엔(1544-3164)
11	thu	가족뮤지컬 '번개맨의 밀림의 왕 타잔' 16:00 -대극장 오페라 '바스티안과 바스티엔느' 17:30, 19:30 -소극장 이 솔리스트(816-5311)
12	fri	가족뮤지컬 '번개맨의 밀림의 왕 타잔' 16:00 -대극장 3만원 · 2만5천원 · 2만원/(주)코엔(1544-3164)
13	sat	가족뮤지컬 '번개맨의 밀림의 왕 타잔' 14:00, 16:30 -대극장 부산직장인밴드 제 2회 정기공연 17:00 -소극장 균일 1만원/박일만(011-837-2223)
14	sun	가족뮤지컬 '번개맨의 밀림의 왕 타잔' 14:00, 16:30 -대극장 3만원 · 2만5천원 · 2만원/(주)코엔(1544-3164)
15	mon	월요일영화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16	tue	한낮의 休 콘서트 11:00 -대극장 균일 1만원/시민회관(630-5200)
17	wed	
18	thu	
19	fri	가족뮤지컬 '호두까기인형' 10:20, 11:40 -대극장 균일 1만5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20	sat	가족뮤지컬 '호두까기인형' 12:00, 14:00, 16:00 -대극장 균일 1만5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21	sun	가족뮤지컬 '호두까기인형' 12:00, 14:00, 16:00 -대극장 균일 1만5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22	mon	월요일영화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23	tue	
24	wed	
25	thu	
26	fri	
27	sat	어린이 마당놀이극 '흥부와 놀부' 12:00, 14:00, 16:00 -소극장 균일 1만2천원/지원기획(622-5744, 011-9511-3744)
28	sun	어린이 마당놀이극 '흥부와 놀부' 13:00, 15:00 -소극장 균일 1만2천원/지원기획(622-5744, 011-9511-3744)
29	mon	월요일영화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30	tue	
31	wed	

금정문화회관 |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2)

1	mon	
2	tue	
3	wed	
4	thu	
5	fri	
6	sat	
7	sun	
8	mon	
9	tue	2007 영 뮤직페스티벌 19:30 -대공연장 균일 5천원/음악춘추(02-2231-9001)
10	wed	2007 영 뮤직페스티벌 19:30 -대공연장 균일 5천원/음악춘추(02-2231-9001)
11	thu	2007 영 뮤직페스티벌 19:30 -대공연장 11시 브런치 콘서트 11:00 -소공연장 앙상블 클라시아(506-6305)
12	fri	
13	sat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11:00, 14:00, 16:00 -소공연장 균일 1만2천원/플러스기획(080-071-1212, 011-9749-4212)
14	sun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14:00, 16:00 -소공연장 균일 1만2천원/플러스기획(080-071-1212, 011-9749-4212)
15	mon	
16	tue	
17	wed	금정수요음악회 '톱 연주 들어보셨나요?'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박진홍(017-563-7966)
18	thu	
19	fri	
20	sat	부산주니어클라리넷앙상블 정기연주회 18:00 -대공연장 김태훈(017-543-0883) 가족뮤지컬 '브레멘 난타음악대 14:00, 16:00 -소공연장
21	sun	가족뮤지컬 '브레멘 난타음악대 14:00, 16:00 -소공연장 심인뮤지컬컴퍼니(02-304-2690, 010-3938-2067)
22	mon	
23	tue	
24	wed	금정 뮤직페스티벌 18:00 -대공연장 노종호(010-6669-6754) 금정수요음악회 19:30 -소공연장 박진홍(017-563-7966)
25	thu	
26	fri	피아노지도자협회 겨울음악회 16:00 -소공연장 초대/박선연(011-9508-6846)
27	sat	어린이 캐릭터뮤지컬 '빨간코 알루' 14:00, 16:00 -대공연장 2만5천원 · 2만원/원스테이지(1588-0881)
28	sun	어린이 캐릭터뮤지컬 '빨간코 알루' 11:00, 14:00, 16:00 -대공연장 2만5천원 · 2만원/원스테이지(1588-0881)
29	mon	김해오페라단 오페라 '바스티안과 바스티엔느' 17:30, 19:30 -대공연장 균일 1만원/이 솔리스트(816-5311,010-3038-7191)
30	tue	김해오페라단 오페라 '바스티안과 바스티엔느' 17:30, 19:30 -대공연장 균일 1만원/이 솔리스트(816-5311,010-3038-7191)
31	wed	금정수요음악회 '토야마 나오코 플루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박진홍(017-563-7966)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예매할 수 있는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14(일) 17:00	빈 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부산	VIP 88,000원 · R석 77,000원 S석 66,000원 · A석 44,000원	10%	올리브엔터테인먼트 (1588-4430)
	1/16(화) 19:30	G솔리스트 첫번째 콘서트	1층 20,000원 · 2층 10,000원	10%	손욱 (011-9520-4649)
	1/20(수) 15:00, 19:00 1/21(목) 14:00, 18:00	뮤지컬 '명성황후'	VIP 99,000원 · R석 88,000원 S석 77,000원 · A석 55,000원 B석 44,000원	10%	소리엔터테인먼트 (755-4545)
	2/8(목) 11: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균일 15,000원	30% (1인 4매)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10(토) 19:30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초청 KNN 신년음악회	VIP 9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10%	KNN방송 (1577-7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11(목)~1/12(금) 10:00, 11:30, 15:30 (11일 첫회공연 없음)	어린이뮤지컬 '빨간모자'	R석 18,000원 · S석 15,000원	15%	나눔기획 (744-6997)
	1/13(토)~1/14(일) 11:30, 14:00, 16:00				
시민회관 대극장	1/15(월)~1/18(목) 10:00, 11:30, 15:30	어린이성교육뮤지컬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1/19(금) 10:20, 11:40 1/20(토)~1/21(일) 12:00, 14:00, 16:00	가족뮤지컬 '호두까기인형'	균일 15,000원	3,000원 할인	동그라미그리기 (818-1772)
KBS부산홀	1/25(목) 19:30	헤르만 헤세 특별전축하 영상음악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20%	부산오페라&뮤지컬 (1577-7600)
창원성산아트홀	2/9(토) 19:30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초청 KNN신년음악회	VIP 9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10%	KNN방송 (1577-7600)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티켓 365(www.ticket365.co.kr) • 중구/남포문고(245-8911), 문우당서점(245-3843)
- 부산진구/동보서적(서면 제일은행 옆 803-8000),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 금정구/신나라레코드 부산대점(부산대 앞 518-0686), 골든악기사(부산예고 앞 512-4295)
- 해운대구/해운대약국(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비바체 클래식(선프라자 1층 743-0003)
- 남구/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 사하구/향학서점(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203-9381)

YAMAHA
감동을 · 함께 · 만드는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야마하 공식 A/S점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부산문화회관은 부산 시민의 문화심터

희망찬 2007년 정해년(丁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의 해' 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갖고 가슴 벅찬 새해를 맞았습니다. 돼지해의 길한 기운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져 2007년 건승과 만복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을 성원해주시고 공연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시민여러분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과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자칫 문화에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부산시립예술단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에 문화는 사치' 라며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사실 경제논리만 강조하다보면 단조로운 우리 생활에서 결국은 정신적인 빈곤의 시기가 닥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본 영화, 연극, 미술작품, 함께 찾은 공연장의 감동이 평생의 기억으로 남는 것을 보면 문화는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름드리나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속 깊이 자란 아름드리나무가 드리운 넓은 그늘에서 우리는 인생의 폭풍우를 피하고 편히 쉬며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은 2007년에도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그늘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사업은 새롭게 시작하는 브런치 공연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입니다. '웰빙콘서트'는 저녁시간에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청소년, 여성, 주부 관객층을 대상으로 오전시간 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월 8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1년 동안 8회의 공연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스타 금난새씨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지휘자 박호성씨가 웰빙콘서트의 지휘자



로 오전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즐거운 무대를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수준을 한 층 더 높여 국내외 유명 지휘자, 협연자 공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복지시설, 각급학교, 교도소 등 공연을 자주 접할 수 없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과 토요일상설무대 등을 활성화 시켜 부산시민들이 부산시립예술단과 더욱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쾌적한 공연 환경조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부산문화회관 리모델링 작업은 올해도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지난해 중극장 객석을 교체한데 이어 올해는 대극장 노후 무대 설비 보수공사와 소극장 조광설비 교체 공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의 주인은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부산문화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공연장에서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부산시립예술단 단원은 물론 부산의 모든 문화 예술인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해년(丁亥年) 한해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07 새해 아침에

부산문화회관장 **진 병 규**

새해 첫 날 아침

양 왕 용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새해 첫 날 아침

잠자리에서 눈 뜨면

은 산과 들판에

순은(純銀)의 세상

펼쳐지기를 소망한다.

지난 해의

미움, 슬픔, 성냄, 다툼 모두 과물히고

기쁨, 즐거움, 사랑, 화평만 흥만한

순은의 세상.

일 떨어진 나뭇가지에 매달린

눈꽃들 그 모양 자랑하고

겨울 새 몇 마리 하늘을 나르는

은 통 솜이불처럼 포근한

따뜻한 아침 소망한다.

거짓과 편가르기는
내린 눈 속에서
밤 사이에 숲 거두고
진실과 화합만 통령이는
새해의 아침.
그 아침에 새로운 태양까지
쏟아오르면
아이간 아이들 모두 나오고
강아지간 강아지도 모두 나와
심지어 어른들까지 함께
덩싱덩싱 춤추겠지?
비록 눈 낀 눈 깜짝할 사이 사라져도
눈은의 빛나는 별판으로
태양 장엄하게 쏟아오르는
그러한 세상 소망한다.

양왕용 시인은 1943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다. 저서로 시집 <갈라지는 바다>, <달빛으로 일어서는 강물>, <여름밤의 꿈>, <버리기, 그리고 찾아보기>, 연구 논저 <한국근대시연구>, <정지용시연구>, <현대시 교육론>, <한국현대시와 기독교세계관> 등이 있다. 현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양왕용시인은 2006년 부산시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丁亥年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2006년 한해동안 부산시립예술단을 아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새해에도 더욱 좋은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인 스타연주자들과 함께하는 화려한 무대

1월 5일 신년음악회로 2007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올 한해 특색있는 다양한 기획무대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그동안 '클래식은 내친구' 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브런치 타임 콘서트를 개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올해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를 2월과 5월, 12월에 개최한다. 지휘자 금난새의 해설로 진행될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는 부산대학교 김영희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성주 교수,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 등 중견 바이올리니스트의 원숙한 연주로 관객과의 음악적 공감대를 이끌 예정이다.

2007년은 세계무대에서 눈부신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인 스타 연주자들의 부산방문이 활발한 해이다. 1월 12일 제 427회 정기연주회에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비올리니스트 최은식을 비롯 피아니스트 한동일(5월 11일),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9월 14일), 피아니스트 김혜정(10월 12일) 등이 협연무대를 통해 수준높은 음악을 선사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콩쿠르 입상 등으로 놀라운 기량을 인정받고 있는 신예 연주자들의 초청무대도 마련되어 있다. 러시아의 거장 티혼 흐레니코프로부터 '러시아 바이올린 핵심 계보인 하이페츠와 오이스트라흐, 막심 벵겔로프를 이을 재목'이라는 극찬을 받았던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3월 2일)와 미국 5대 메이저교향악단인 신시내티심포니 부수석으로 입단한 플루티스트 최나경(6월 14일)이 참신하면서도 실력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이밖에도 청소년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있는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 내친구(8월 22일)'와 4월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교향악의 향연 '교향악축제', 대구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까르미나 브라나(12월 21일)'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또 지난 2004년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던 제야음악회가 올해 새롭게 부활되면서 12월 31일 부산 시민들과 함께 2007년을 보내는 송구영신의 무대도 마련된다.





시대와 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기획 무대 선사

“2006년 한 해 동안 우리 음악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부산시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환경음악회 ‘상생’, 팔빙수같이 시원한 음악회,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로 국악애호가들과 만나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신년을 맞았다.

올해 첫 무대는 1월 25일 신년음악회로 연다. 전통에 뿌리를 둔 우리 음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자하는 의지를 담아 歌, 舞, 樂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삼색음악회를 구성했다. 부산국악계의 원로 소리꾼 김정애, 지수복선생과 젊은 소리꾼 박성희, 정선희가 한 자리에서 들려주는 歌,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홍기태와 부산대학교 이윤자 교수의 舞,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하는 樂으로 신년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특히 올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07년부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일보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를 기획, 부산국악애호가들과 새롭게 만난다. ‘웰빙콘서트’는 주부, 여성들을 위한 브런치 공연으로 이야기가 있는 토크콘서트, 립스틱 콘서트 등 다양한 타이틀로 국악애호가들과 만날 계획이다. 3월 16일 첫 무대에서는 주부들이 선호하는 가수를 초청, 주부들을 위한 맞춤형무대를 연다.

또 지역간 국악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리 창작국악의 밝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부산 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다섯 번째 무대가 9월 10일부터 4일간 펼쳐진다. 지난해 유료 공연으로 마련되었지만 높은 좌석 점유율로 우리 창작국악관현악에 대한 관심을 확인한 만큼 올해는 더욱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는 생각이다.



그 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전국 최고의 국악관현악단으로 위상을 알려준 ‘Hi Seoul, Dynamic Busan’ (5월 28, 서울), 청소년 국악 유망주들의 등용문 ‘꿈과 사랑이 있는 젊은 음악회’ (10월 18일), 송년음악회 (12월 20일)와 함께 토요일상설무대, 찾아가는 예술단, 외국인을 위한 공연 등 정규 프로그램들은 공연 횟수를 늘려 우리 음악의 우수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일반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

2006년 11월, 독일 함부르크 한인회와 함부르크 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초청으로 독일 4개 도시 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부산시립합창단은 2006년 무대를 마감하는 송년음악회 '웰컴 크리스마스 & 굿바이 모차르트'에서 받은 뜨거운 성원과 격려로 어느 때 보다 벅찬 2007년을 맞았다.

부산시립합창단은 2월 13일 '한국창작합창음악의 밤'으로 2007년 첫 무대를 연다. 그동안 합창음악의 발전을 위해 작곡가들의 창작 위촉곡을 꾸준히 발표해온 부산시립합창단은 올해 특별히 2월과 11월 2회의 '한국창작합창음악의 밤'을 계획하고 있다. 3월의 제 122회 정기연주회는 부산시립합창단 6대 지휘자였던 이상열지휘자(현 김해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초청하여 리바이벌 무대를 꾸미고, 6월의 제 123회 정기연주회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나단조 미사(Messe h-moll)' 곡으로 장엄한 무대를 갖는다. 나단조 미사는 1724년에 착수하여 1749년경 완성된 고금의 미사곡의 최고봉에 위치한 걸작이며 종교 음악가로서 바흐의 역량이 결집된 명작이다.

10월의 제 124회 정기연주회는 '극이 있는 합창무대'를, 12월의 제 125회 정기연주회는 '영원한 크리스마스(Christmas Forever)'라는 제목으로 캐럴음악을 중심으로 무대를 계획 중에 있다.

그 외에 다양한 특별연주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4월에는 시립합창단원 중 소그룹이 모여 다양하고 흥겨운 '아카펠라 합창음악'을 들려주며,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의 세 번째 7080이야기' 무대가 이틀동안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가수 안치환을 초대, 멋진 합동무대로 꾸밀 계획이다. 7월에는 60년대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추억이 있는 팝 합창 음악'을 특별히 선곡, 5월 음악회와 짝을 이룰 계획이다.

또 8월에는 부산, 경남지역의 문화교류를 위해 2000년부터 매년 펼쳐지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 도립 합창단 합동음악회(8월 25일)와 10명의 베이스가 꾸미는 'Ten Bass'(9월 18일) 그리고 부산의 모든 합창단이 펼치는 부산합창제(10월 23일~27일)도 변함없이 펼쳐진다.





부산시립무용단

춤으로 읽는 우리 고전 레퍼토리 시도

2006년 한 해 동안 정기공연, 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공연, 찾아가는 예술단 등의 정규 프로그램은 물론 중남미 4개국 초청공연, 일본 시모노세키 초청공연, 중국 초청공연, 캄보디아 초청공연 등 부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바쁘게 보낸 부산시립무용단은 2007년 황금돼지 해의 복된 기운을 담아 의욕적인 신년을 맞는다.

우리문화, 우리 춤사위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공연을 통해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온 부산시립무용단은 2007년에도 전통을 바탕으로 한 창작무용 작품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석안무자 홍기태는 올해 특히 우리 고전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 두 편의 작품을 새롭게 선보인다는 계획으로 신년 작품 구상에 분주하다. 2007년 첫무대는 1월 17일과 18일 '2007 우리 춤 산책'으로 연다. 우리 전통 춤의 맥을 이어 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이 그동안 정기공연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우리 춤에 대한 열정을 담아 펼치는 '우리 춤 산책'은 한 무대에서 우리 전통 춤사위를 비교 감상할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펼쳐지는 정기공연에서는 2005 여름마당춤관에서 호응을 얻은 '이쁜이 시집가는 날'을 새롭게 구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를 해학과 신명이 살아있는 마당춤판으로 그려내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7월의 여름 마당춤판은 '선녀와 나무꾼'으로 2007년 한여름밤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11월 8일과 9일로 계획된 제 57회 정기공연에서는 백두대간 두 번째 작품 '大 백두대간'을 선보일 계획



이다. 2004년 초연된 백두대간은 북을 치면서 역동적인 춤사위를 펼치는 작품으로, 장엄미와 역동성을 더욱 살려낼 계획이다. 그 외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공연,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매년 12월 가져온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 장애인을 위한 송년공연에서도 열정 넘치는 흥겨운 춤사위로 우리 춤의 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과 일본의 두 극단이 공동 작업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6년은 부산시립극단이 ‘고래섬’을 무대에 올리면서 내, 외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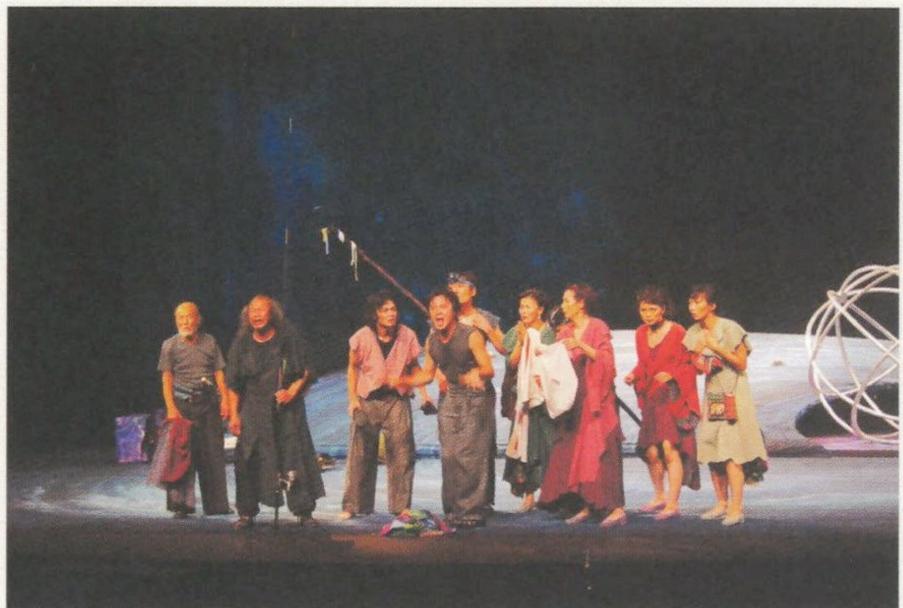
지난해 일본의 김가도 극단과 2년간의 준비 끝에 막을 올린 ‘고래섬’으로 일본 동경,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등 6개 도시 순회공연을 가지는 등 창단 이래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친 부산시립극단은 2007년 3회의 정기공연과 1회의 특별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2006년 3월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희곡 ‘십이야’를 부산에서 초연, 정통 코미디의 진수를 선보이며 산뜻한 출발을 했던 만큼 올해도 세계명작의 ‘재해석’을 통해 유쾌한 웃음으로 첫 무대를 연다. 올해 손기룡 수석 연출가가 선택한 작품은 새로운 양식의 희극을 창조해낸 프랑스의 작가 몰리에르의 ‘거짓놀이(원제:스카팽의 간계)’.

3월 15일 무대에 오를 ‘스카팽의 간계’는 부산에서는 초연되는 작품으로 몰리에르의 희극적 천재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1671년 초연된 이 작품은 웅고집이고 인색한 부친이 집을 비운 사이에 돈도 신분도 없는 처녀와 묘한 관계에 있던 두명의 청년이 하인 스카팽의 간계로 순조롭게 뜻을 이룬다는 비교적 간단한 줄거리의 갈등희극이다. 비평가 부알로는 졸작이라고 혹평했지만 하인 스카팽이 잇달아 책략을 꾸며내어 구두쇠 아버지에게서 돈을 뜯어낸다거나, 그를 자루 속에 넣어 몽둥이로 때린다거나 하여 아주 유쾌하고 변화무쌍한 희극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인기리에 상연되고 있다.

5월에는 부산국제연극제에 초청받아 연극제 기간 중 정기공연을 가진다. 10월 정기공연에서는 ‘영원지애’ 이후 오랜만에 창작 뮤지컬 작품에 도전한다. 작가와 구체적인 작품에 대해 구상하고 있다.

그 외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관람객들을 위해 마련하는 ‘찾아가는 예술단’,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공연 등은 공연 횟수를 늘려 다양한 무대에서 부산 시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다른 장르와의 접목 통해 다양한 레퍼토리 선사

지난 7월 12일 마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를 역임한 이동신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영입,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2007년을 맞는 의미가 남다르다.

“지휘자의 공백으로 단원들의 기량에 기복이 많았지만 연주회마다 단원들의 기량이 몰라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 다양한 기획과 레퍼토리로 청중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2007년을 맞으며 이동신 지휘자는 지난해 보여준 단원들의 열정이 기량향상과 수준 높은 무대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획 구상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신년인 만큼 장기적인 교향악단 발전을 염두에 두고 신년 계획을 구상했다.

단원들이 모두 학생들이며, 대다수의 청중들이 학생들인 만큼 청소년교향악단 프로그램은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미국, 러시아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다른 장르와의 접목을 통한 다양한 무대를 마련 할 계획이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2007년 한해동안 3회의 정기연주회와 3회의 특별연주회를 가진다. 4월 3일 펼쳐지는 첫 무대에서는 제 25일 정기연주회로 인제대학교 노경원 교수의 피아노 협연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5월 31일 정기연주회에서는 바하의 작품과 현대 작곡가들의 눈에 비친 바하의 음악으로 꾸미는 '바하 음악의 밤', 7월 12일 정기연주회에서는 자주 접하기 힘든 '스페인과 라틴음악의 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연주회 외에도 청소년교향악단은 올해 처음으로 신인성악가 발굴을 위해 대학 성악전공자들을 위한 음악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성악전공자들의 등용문이 많지 않았던 것을 고려해 오디션을 거쳐 우수한 신인

성악가들을 발굴하고, 협연무대를 가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교향악단과의 협연자 만으로도 소규모 오페라 무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아울러 단원들의 무대 경험을 살리기 위해 다른 시도와의 교류 연주회도 한층 더 늘려 나갈 계획이다.



해맑은 소리로 빛어내는 우정의 앙상블

매년 전 지역 소년소녀합창단과의 교류무대를 통해 음악적 위상을 높여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07년에도 다양한 교류무대로 부산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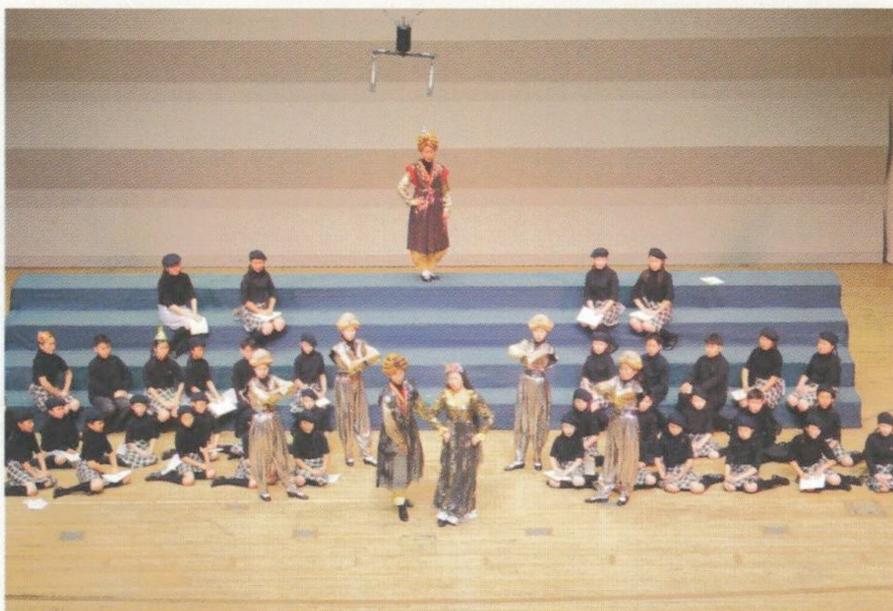
우선 6월 16일 열리는 '프렌들리 콘서트(Friendly Concert)'에서는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이어 김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연주하고, 9월 15일 제 121회 정기연주회 '우정만들기'에서는 지난해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이어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부산을 찾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우정의 무대를 갖는다.

2000년과 2002년 월드비전선명회어린이합창단 주최 세계어린이합창제를 통해 세계 정상의 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무대에 선 김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매년 한국합창제, 김포문화예술제,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한국어린이합창컨벤션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창단 내에 챔버오케스트라를 보유하고 있어 그동안 다양한 장르의 무대와 레퍼토리로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8월에는 지난해 6월 제 117회 정기연주회 객원지휘자로 부산시민들과 만났던 지휘자 이와자키 요우이치가 상임지휘자로 있는 기타큐슈소년소녀합창단이 부산을 찾아 한, 일 청소년들이 음악으로 우정을 나눈다.

이밖에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34주년을 기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거쳐간 전 단원과 함께 하는 가족초청음악회(3월 31일)와 성남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단들의 최대 음악축제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5월), 부산지역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부산청소년합창제(11월 3일), 송년무대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과 그 가족이 한무대에 서는 가족사랑음악회(12월 28일) 등 다양한 무대와 광주 순회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본격적인 연주일정에 앞서 1월에는 단원들의 기량향상을 위한 동계합창캠프가 열린다. 특히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뿐 아니라 전국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참가, 서로의 기량을 확인하며 화합을 다질 예정이다.



2007년 부산시립예술단 공연계획

단체명	월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교향악단		▶5(금) 大 신년음악회 ▶12(금) 大 제427회 정기	▶8(금) 大 특별기획 '웰빙콘서트'	▶2(금) 大 특별 ▶9(금) 大 제428회 정기 ▶30(금) 大 특별	▶10(화) 大 제429회 정기 ▶27(금) 大 제62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1(금) 大 제430회 정기 ▶18(금) 大 특별기획 '웰빙콘서트'
국악관현악단		▶25(목) 大 제133회 정기 '신년음악회'		▶16(금) 大 특별기획 '웰빙콘서트' ▶29(목) 大 제134회 정기 '신춘음악회'	▶27(금) 中 제135회 정기	▶28(월) 大 ※서울순회공연
합창단			▶13(화) 中 한국 창작합창 음악의 밤	▶27(화) 大 제122회 정기	▶24(화) 大 소그룹연주회 '아카펠라 합 창음악'	▶25(금)~26(토) 大 부산시립합창 단의 세번째 7080이야기
무용단		▶17(수)~18(목) 小 우리춤 산책			▶30(월) 大 외국인을 위한 특별공연	▶31(목)~6/1(금) 大 제56회 정기
극단				▶15(목)~17(토) 中 제28회 정기		▶29(화)~6/2 (토) 小 제29회 정기
청소년 교향악단					▶3(화) 大 제25회 정기	▶31(목) 中 제26회 정기 '바하음악의 밤'
소년소녀 합창단				▶31(토) 大 특별 가족초청의 밤		

※이 공연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목) 大 제431회 정기	▶20(금) 大 부산음악콩쿠르 시상식	▶22(수) 大 특별기획 '클래식은 내친구'	▶14(금) 大 제432회 정기 ※일본순회	▶12(금) 大 제433회 정기 ▶30(화) 大 제434회 정기	▶16(금) 大 제435회 정기 ▶23(금) 大 특별 ▶29(목) 大 제63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6(목) 大 웰빙콘서트 ▶13(목) 大 제436회 정기 ▶21(금) 大 특별 ▶31(월) 大 제야음악회
▶8(금) 大 특별기획 '웰빙콘서트'	▶5(목) 大 제136회 정기		▶10(월)~13(목) 大 제5회 부산 전국창작국악 관현악축제	▶5(금) 大 특별기획 '웰빙콘서트' ▶18(목) 中 제32회 청소년협연의 밤	▶15(목) 中 제137회 정기	▶20(목) 大 제138회 정기 '송년음악회'
▶21(목) 大 제123회 정기 '바흐 나단조 미사'	▶24(화) 中 추억이 있는 팝 합창음악	▶25(토) 大 3개시도 꿈의 남성합창	▶18(화) 中 소그룹연주회 'Ten Bass'	▶18(목) 大 제124회 정기 '극이 있는 합창무대' ▶23(화)~27(토) 大 부산합창제	▶22(목) 中 한국창작합창 음악의 밤	▶18(화) 大 제125회 정기 '영원한 크리스마스'
	▶19(목) 中 2007 여름 마당춤판 '선녀와 나무꾼'	▶23(목) 中 2007 한여름 밤의 춤 작가전	▶29(토) 大 외국인을 위한 특별공연		▶8(목)~9(금) 大 제57회 정기	▶11(화) 大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12(수) 大 장애인을 위한 특별공연
▶29(화)~6/2(토) 小 제29회 정기				▶25(목)~27(토) 中 제30회 정기		▶5(수)~8(토) 中 특별
▶15(토) 中 협주곡의 밤	▶12(목) 大 제27회 정기 '스페인과 라틴음악의 밤'			▶11(목) 大 '성악가들을 위한 협주곡의 밤'		▶14(금) 大 송년음악회
▶16(토) 大 제120회 정기 프랜들리 콘서트			▶15(토) 大 제121회 정기 우정만들기		▶3(토) 大 제22회 부산 청소년합창제	▶28(금) 大 송년음악회

〈大-대극장, 中-중극장, 小-소극장〉

국민훈장 목련장 받은

(사)국제예술문화원 이사장 배혜경



부산문화계의 어른인 (사)국제예술문화원장 배혜경 이사장이 지난 10월 교정의 날을 맞아 34년 동안 재소자들에게 헌신적인 봉사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대통령표창을 비롯 부산시문화상, 국무총리표창, 세계 평화문화상, 말레이시아 수상공로상 등 굵직한 상들을 많이 탄 그이지만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하지만 다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번 훈장을 보며 엄마, 누나,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정을 나누고 왕래하며 함께 한 지난 시간

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배혜경(70) 이사장은 강선영, 이매방, 한영숙 등 한국 대표 춤꾼들을 사사한 부산의 대표 춤꾼으로 한평생 부산문화 발전을 이끌어왔다. 칠순을 넘긴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친다.

배혜경 이사장은 호탕한 기질과 타고난 리더십으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부산지회장을 세 차례나 역임했다. 예총 회장 재임 중 부산사진전람회, 신인음악회, 부산무용제, 부산국악대전 등을 시작하는 등 부산의 문화 중흥을 위해 앞장서왔다.

무용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1960년 말 부산시립무용단의 필요성을 깨닫고 당시 김현옥 부산시장에게 부산시립무용단의 창단을 건의해 부산이 전국 최초로 시립무용단을 창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때문에 배혜경 이사장은 부산시립무용단 정기공연이 있는 날은 어김없이 공연장을

찾아 단원들을 격려한다.

요즘에는 국제예술문화원 무용단을 이끌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00년에는 국제예술문화원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보산국제민간예술제에서 한국대표로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05년에는 دبي 쇼핑 페스티벌에 초청돼 태평무, 장구춤, 화관무 등 8개 작품을 무대에 올려 세계인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그는 한 달간 계속된 دبي 공연 일정동안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후배, 제자들을 놀라게 했다.

“세상에는 혼자란 있을 수 없어요. 세계 공연을 다니다 보면 정말 능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많이 만나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자기 분야만 고집하지 말고 부산의 모든 예술인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부산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을 주목받는 ‘예술인’으로 살아온 그이지만 재소자 교화사업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틈틈이 활동을 해왔다. 부산교도소의 초대 교정 교화위원회 초대회장을 10년간 역임하고 현재는 고문직을 맡고 있다. 배혜경 이사장과 재소자들과의 인연은 1972년 선배의 권유로 재소자 체육대회 심시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34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재소자들의 교화 활동을 지원해왔다. 그동안 수용자 체육대회, 교화공연, 원예온실 설치, 운동장 사열대 지원, 운전면허시험장 설치지원 등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한 공로가 인정되어 전국 교정위원으로서는 혼자 국민훈장을 수상하게 되었다. 1992년 배혜경 이사장은 부산시문화상을 수상하고 즉석에서 문화상 상금을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해 기탁하기도 했다.

평소 배혜경 이사장은 교화 활동을 ‘나와 남이 모두 잘되는 것,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수용자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 훌륭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일흔 평생을 살아보니 봉사라는 것이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어려운 이웃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인성이 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아.”

예술적 영감과 봉사정신으로 평생 사랑을 실천해온 배혜경 이사장. 12월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심장 수술을 받아 주위를 놀라게 했지만 최근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하여 조심스럽게 활동을 재개했다. 배혜경 이사장은 새로운 삶을 덤으로 받았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더욱 감사하고 봉사하며 살고 싶다.



배혜경 이사장은 예술적 영감과 봉사정신으로 평생 사랑을 실천해 왔다.

유럽무대를 열광시키는 한국의 음악가들

이승주 · 비엔나 통신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는 서쪽으로 스위스·리히텐슈타인, 북서쪽으로 독일, 북쪽으로 체코, 동쪽으로 헝가리 남서쪽으로 이탈리아, 남동쪽으로 슬로베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럽 중심으로서 대교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이다. 또한 이곳은 오스트리아 '음악신동' 아마데우스 모짜르트, '악성' 베토벤, '가곡의 왕' 슈베르트, '왈츠의 황제' 요한 슈트라우스 등 유명 음악가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가들이 마지막을 함께 하고픈 세계 최고의 음악 도시이기도 하다.

음악 도시답게 어느 곳을 가도 잔잔한 음악의 선율이 울려 퍼지고, 그들의 여유로운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햇빛 쏟아지는 노천카페에 앉아서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면 거리에서 자유롭게 연주를 하는 연주자들에 의해 그곳이 바로 콘서트홀이 되는 도시. 말 그대로 이곳은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인 것이다.

하지만 클래식음악의 본고장에서 그들의 음악을 가지고 우리네가 무대에 서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세계유수의 콩쿠르에서 순위를 석권하기 시작했고, 세계의 무대에서 초청받으며 활동하는 음악가들이 생겼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연주자 본인의 재능과 눈물나는 노력이 있었겠지만, 그들의 그림자 역할이 되어준 이들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쉐부른클래식매니지먼트(주) 대표이사 권순덕이다. 그는 비엔나에 살면서 그곳의 배타적인 음악현실에 우리음악가들이 기회를 잃어가는 것이 안타까워, 음악가들이 음악을 연주할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20여년 동안 직접 발로 뛰어다니게 됐다고 한다. 대표이사 권순덕은 이제야 그들에게 우리를 알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실력에 감탄하는 결과에 대해 오히려 본인이 더 큰 감동과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20여년간 흘린 땀과 노력을 빛나게 해준 음악가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전한다.



이제 그의 기획에 의해 비엔나를 중심으로 유럽 곳곳에서 이루어진 연주들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국내를 비롯해 세계 각국을 오가며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 여미혜가, 지난 9월 유럽의 이태리와 프라하를 분주히 오가며 순회연주를 통해 다시 한번 그녀의 입지를 굳혔다.

이번 순회연주는 아름답지만 슬픔이 묻어나는 슈베르트의 '소나타 아르페지오'를 시작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구 소련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소나타'에서 여미혜는 자신만의 매력적인 감수성으로 작품의 낭만성을 최대한 부각시켰다.

또한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쇼팽의 '화려한 폴로네이즈'의 마무리로 깊어가는 가을 밤 공연장을 가득 매운 청중들을 서정적인 무대로 안내했다. 이번 순회연주들은 100년~200년 동안 유럽시민의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품은 고풍스러운 홀에서 이루어져 그녀의 서정적인 감수성에 더 빛을 더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번 연주 중 3회를 함께한 피아니스트는 세계적인 피아노 콩쿠르의 음악감독이자 이태리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Antonio di Cristofano이다. 이들의 무대는 서로의 개성을 침범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충분히 제 소리를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줄 알았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청중을 점점 더 몰입시키게 했으며, 그들이 주고받는 미소 속에서 이들 스스로가 음악을 즐기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이번 순회연주는 4일 동안 4번의 연주를 해야 했고, 더구나 체코에서 이태리로의 이동까지 있는 강행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만의 특유의 따뜻함과 여유로움으로 끝까지 연주에 집중하는 모습이 연주를 감상하는 청중에게 전해져 오래도록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된다.

테너 류정필은 미국 캔자스시티 서쪽 캔자스강 연안에 위치한 Topeka에서 열리는 토페카 시즌 페스티벌개막연주에 초청되어 Topeka Symphony Orchestra의 연주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항상 무대에 서면 음악을 통해 청중들과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항상 마음 설레게 한다는 테너 류정필은 사실 Topeka에서의 연주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9월, Topeka Symphony Orchestra의 60주년 기념연주회 솔리스트로 참가한 베토벤의 '제 9번 교향곡'은 현지 TV 등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그들에게 테너 류정필의 음악적 숨결을 강하게 각인시켰다. 덕분에 이번 시즌 개막연주의 솔리스트로 다시 초청받아 또 한번 이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체코 일간지 Kultura-Kraj Karovarsky 9월 20일자 에 실린 첼리스트 여미혜



비엔나 국립음대에 재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이호준, 첼리스트 정다운, 피아니스트 박상욱으로 구성된 VMC 트리오가 주목받고 있다.



피아니스트 서정원은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부다페스트와 오스트리아에서 협연무대를 가졌다.

테너 류정필은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본인에게 없는 그 무엇인가를 항상 배우기 위해 분주하다. 이러한 자세들이 그를 또 한번 빛나게 하는 요인인 것 같다.

그는 한국인으로서 드물게 남국의 테너 목소리를 지녔으며, 항상 청중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쿠오레(가슴, 마음의 이탈리아)' 앨범 발매와 국내외 초청 연주로 2006년을 누구보다 정신없이 보냈을 것이며, 2007년, 2008년에도 밖에서 들려오는 그의 막힘없는 행보에 기대를 걸어본다.

여기 비엔나 국립음대에 재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이호준, 첼리스트 정다운, 피아니스트 박상욱으로 구성된 VMC 트리오가 10월 12일 오스트리아 Klosterneuburg Augustinussal에서 초청연주를 가졌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상황을 꼽으라면 두 말할 나위 없이 앙상블 연주라고 한다. 하지만 앙상블 연주는 각각의 기량을 적절히 조절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의 소리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소리에 또한 귀 기울여 조절해야 함이 필요해 어려운 연주이다.

아직은 자신의 개성이 너무도 뚜렷한 젊은 연주자들이지만, 실내악의 가장 중요 요소인 타인의 음악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들의 연주는 청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고, 그들의 힘 있는 연주는 지켜보는 이들에게 신선함마저 안겨주었다.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임을 잊지 않고 첫 곡을 모차르트로 시작한 이들의 연주는 슈베르트의 곡으로 음악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었으며, 마지막으로 느린 부분과 빠른 부분이 교차로 이루어지는 드보르작의 'Dumky'는 젊은 연주자들의 매력을 발산하기에 알맞은 선곡이었다. 앞으로 이들의 힘찬 발전을 기대해본다.

'항상 내면을 연주에 싣고 청중과 함께 호흡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 한다'는 피아니스트 서정원이 10월 17일과 19일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부다페스트와 오스트리아에서 협연이 있었다.

이날 서정원이 연주한 피아노 협주곡 라단조 작품 K.466은 모차르트의 전 작품을 통해서도 그다

지 많지 않은 단조의 작품일 뿐 아니라 27곡의 피아노 협주곡 중 제 24번 단조와 더불어 단 두 곡 중의 하나이다.

피아노 협주곡으로서는 과거에 없었던 심오한 내용과 면밀한 구성을 갖추어 전곡에 어두운 정열과 음악적 카타르시스가 시종 넘쳐흐르고 있다. 이 협주곡은 절박한 정감을 보이고 있어 이런 의미에서도 이 협주곡은 독특한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마치 베토벤의 교향곡에서 느끼는 그러한 장엄미마저도 느껴지는 곡이다.



지난해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한 당찬 신예 피아니스트 김혜진이 스페인에서 이루어진 스페인국제피아노콩쿠르 오프닝 콘서트에 초청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이번 연주는 부다페스트심포니오

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서정원 사이의 음악적 교감이 너무나 훌륭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그녀가 늘 말하는 '인간적 내면성이 연주를 통해 충분히 드러나야만 서로 하나로 조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연주중 청중의 반응을 통해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해외 음악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후학양성에, 그리고 본인의 음악적 성숙을 위해 부지런히 달리고 있는 피아니스트 서정원의 2007년에도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본다.

지난해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던 당찬 신예 피아니스트 김혜진이 스페인에서 열린 스페인 국제피아노콩쿠르 오프닝 콘서트에 초청되는 영예를 안았다. 11월 18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이번 연주를 통해 그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젊은 연주자로서의 면모를 탁월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당당히 유럽무대에 이름을 알리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혜진은 작지만 큰 힘을 가진 문화외교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음악에 대한 집중력으로 청중을 압도시키는 매력을 가진 피아니스트 김혜진. 앞으로 그녀의 행보가 기대된다.

박물관 속의 국악

홍희철 · 고신대, 경성대, 부산교대 외래교수

“칠순을 맞이하는 할머니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신청곡은 김**의 옹헤야...”

“거문고 정악, 하현해탄이 듣고 싶습니다.”

모 방송국의 FM방송에서 우리음악을 소개하게 되면서 웃지못할 일을 경험하게 된다. 필자가 방송하는 주 청취자는 주로 주부들이나 직장인들인데 클래식 등을 집중해서 방송하는 프로다.

방송 청취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곡을 선곡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마침 필자가 강의나가는 학교 학생들에게 이 방송을 소개하고 혹시 방송을 통해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신청하라고 했다. 한 학생이 신청곡으로 우리음악 중, 아주 느린곡을 하나 들려달라는 글을 인터넷 사연신청란에 올린 것이었다. 이 신청곡을 방송할 경우, 상당수의 고정 애청자층인 주부들이 설거지하다가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참 난감했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 학생은 아마 요즘 국악과 양악이 서로 한데 어우러져 크로스오버된 곡이나 퓨전곡들의 제목을 모르고 있거나 그런 종류의 곡들이 상당히 많음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신청곡 올리는 곡 제목들을 보면 서양음악의 다양한 기악, 성악곡들이 올라오곤 했는데 국악신청곡은 백에 하나정도? 그것도 이미 서양음악에 상당히 잘 훈련된 귀를 가진 주부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무거운듯 한 전통 음악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악전공자가 전통을 무시하다니...’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전통음악은 품위있고 운치있고 수준높은 음악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음악들이 시간을 가려가면서 방송에 나와야할까. 아마도 그것은 대개의 경우 전통국악에 대한 오해와 닫힌 마음, 그리고 국악에 대해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일반인들을 고려한 배려(?) 때문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일반인으로 부터 외면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국악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까? 수백 수천 년을 이어온 이 국악이 미래의 후손들에게 과연 전해질까라는 걱정이 많이 앞선다. 오늘날 국악이 우리에게 물려져 연주되고 연구하게 된 것은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사랑하고 즐겨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서양음악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화성과 선율에 놀려 어찌면 국악의 명맥이 우리 시대를 끝으로 막을 내려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제 마냥 여유 부릴 수만은 없는 것 같다.

한 가지 사례로 조선후기까지 우리왕실과 국민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연주되던 ‘비파’라는 악기는 이미 그 흔적이 사라졌다. 악기의 생김새를 알려면 박물관에 가야지 볼 수가 있다. 필자는 비파가 사라



진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잘 안된다. 어떻게 한 시대를 풍미하던 악기가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냐는 것이다. 바이올린, 첼로가 명맥이 끊어져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 악기들이 악기박물관에 가야만 볼 수 있다면 이해가 되겠는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 악기든, 사람이든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게 되면 사라지는 법. 우리는 비파라는 악기를 통해서 국악의 미래를 볼 필요가 있다.

한글날이면 우리는 누구나 한글의 우수성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또 외래어의 홍수 속에 헤어나지 못한다. 우리 역사는 강인한 역사이고 5000년의 역사라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바쁘게 살면서 그렇게 지나간 역사를 그리워하거나 자부심만으로 살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 음악의 우수함과 독창성,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는 엄연히 선을 그은 독특한 음악 세계 등 우리는 너무도 우수한 음악유산을 가졌음에도 잘 모르고 사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다. 지금 우리 음악에 대해 사랑하고 관심 가져야 국악이 21세기를 풍미하고 유유히 우리역사와 함께 이어 나가지 않겠는가.

임진왜란 때 우리 선조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대부분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우리나라 곳곳에는 코와 귀가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일본인들이 산사람의 코와 귀까지 베어갔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도공들을 자기나라로 생포해갔다. 아마 필자의 추측으로는 많은 도공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해주는 일본인들을 따라갔는지도 모를 일이다. 자기나라 조선에서는 하층민 대우를 받는데 일본인들은 자신들을 생포가 아니라 거의 모셔가듯이 데리고 가니 왜놈들이 싫지만 그래도 한번 사람답게 대접 받으면서 살아보기 위해서라도 도자기 기술을 일본에 적극적으로 전수하지나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일본의 도자기 기술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조선도자기 제작기술이 고스란히 일본으로 이식된 것이다.

독창적인 우리전통음악이 그 맥이 끊어질 기미는 솔직히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는 너무도 많은 국악전공자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될 것 같다. 비파라는 악기가 사라지고 박물관에서 전시되는 운명에 처하게 될 줄을 그때 궁중악사들이, 선비들이, 우리 선조들이 과연 상상이나 했겠는가...

새해가 시작됐다. 심오하고 깊이 있는 전통음악을 즐겨보자.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우리민족의 우아하고 위엄 있는 왕실을 생각하면서 궁중음악을 감상해 보자. 민초들의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담긴 관소리, 민요를 즐겨보자. 감미롭고 아련한 해금, 가야금, 피아노가 함께 연주한 음악을 제각각 취향대로 감상하면서 새해 2007년을 시작해보자. 멋지지 않은가?

커튼과 비누

－ 채경혜의 판화 <광상곡(부분)>

김형술 · 시인



채경혜의 판화 <광상곡(부분). mixed media, 304 x106cm,2002>

비는 투명한 비닐커튼이다. 이슬비 이거나 가랑비일 땐 얇고 부드러운 커튼이지만 폭우, 혹은 강우일 땐 두텁고 무겁게 움직이는 커튼이다. 하늘에서 지상까지 드리워진 채 일렁이거나 완강하게 고정된 이 커다란 커튼은 세상을 절반쯤 가리거나 지운다. 그렇게 절반쯤 가리워지고 지워진 세상의 풍경들은 묘하게 인간을 안심시킨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으로부터 적어도 한 뼘은 격리되었다는 심리적 안정감, 그러나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저 야성적인 힘에 관한 매혹이 꿈틀거림을 부인하지 못한다. 인간이 잃어버린 원초적 에너지가 빗줄기 속엔 숨어있다. 잿빛 구름으로 하늘을 가득 메워서 지상의 모든 생명들, 사물들에게서 그림자를 앗아가는 비의 매혹. 높은 곳과 낮은 곳, 음지와 양지, 산 것, 죽은 것, 날 것과 길 것을 가리지 않고 온전히 제 몸을 던져

세상을 적시는 비의 힘은 크고 아름답다. 비는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평등하게 적신다. 젖어 반짝 이거나 제 빛을 잃거나 상관없이 세상은 비의 위력에 무릎을 꿇은 채 제 무력한 알몸을 드러낸다. 하지만 물로 이루어진 몸을 가진 구름의 아이들인 비는 지상에 닿는 순간 제 목숨을 다한다. 날카로운 사선으로 혹은 수직선으로 허공에 서는 찰나가 비가 가진 생애 최고의 순간일 따름이다. 제 가진 모든 것을 퍼부어 다만 한 순간 허공에 꽃피우는 삶. 겹겹 투명한 커튼이 되어 짧은 한 순간 세상의 질서들을 제 것으로 바꾸어 만들며 꽃으로 피다 사라지는 천상의 꽃이자 지상의 제왕인 비. 그것이 비가 가진 존명의 비애임으로 비는 아름답다. 그런 연유로 비는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비애의 대표적 상징이 되었을 터이다.

폭우가 쏟아진다. 채경혜의 그림 'Rhapsody in 2002005' 속의 폭우는 여느 바람의 움직임도 거느리지 않은 세찬 수직의 강우이다. 이 비는 사물의 가진 형체와 색채를 지우는 대신 푸르스름한 잿빛과 먹빛을 남긴 채 격렬한 움직임만을 남겨놓고 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비의 세례. 이 세례가 어떤 생명에게 저주이고 어떤 생명에게는 또 축복이겠지만 화면 속에 넘쳐나는 날카롭고 섬세하며 또 힘차기 그지없는 빗줄기의 동선은 막막하고 음울한 심상의 잔영을 남긴다. 허공에서 지상까지 이어진 빗줄기의 선들이 가진 치열한 에너지는 인간의 내면 어딘가에 숨겨진 광포한 감정의 한 부분을 건드린다. 억눌려있던 고독과 분노와 증오와 그리움 사이 어떤 지점에서 치솟아 오르며 정점을 향해 치솟는 격렬한 감정의 한 순간. 하지만 그 광포한 열정이 남긴 이미지의 잔영 속엔 또한 마치 한 폭의 동양화같은 적요와 침묵의 공간이 동시에 존재한다.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열정의 순간 너머 그 열정보다 더 크고 깊어 순명한 적막의 공간. 그렇게 시간이 멈춘 그 공간이야 말로 비가 가진 비애의 아름다움일 터이고 그림을 그린 이는 어쩌면 비가 가진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의 순간 그 너머에 존재하는 태초의 공간, 세상의 모든 불협화음과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바벨의 언어들 지운 완전한 침묵의 순간을 포착하려 한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 그림의 제목인 랩소디, 즉 즉흥성을 중시한 악곡의 한 형식이 이 그림의 제목이라는 건 썩 적절해 보인다. 비야 말로 하늘이 연주하는 가장 아름다운 즉흥곡이며 이 치열한 한 악장의 즉흥곡은 마치 비누처럼 세상의 때와 먼지와 소음 따위 반목을 씻어 눈부시게 반짝이게 하는 축복의 제의(祭儀)이기도 할 터이므로, 강우가 쏟아지는 이 그림 속의 공간과 마주한 누군가의 마음 속에 우울하고 나른하거나 거칠고 격한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선다면, 그렇다면 그건 비가 인간의 내면을 적시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비는 한순간의 강렬한 에너지로 억제되어 있거나 엉켜있는 다층적 감정들을 풀어내고 씻어주는 비누같은 힘을 갖고 있다. 그 힘은 향기롭고 향기의 여운은 길다.

오카리나 이야기 <5>

박종근 · 한국음악오카리나협회장



생활음악,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동안 편하게 들으며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이랄까... 요즈음 '생활음악축제'란 타이틀로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열리는 생활음악을 예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먹이사슬의 구조가 그렇듯 음악의 구조도 쉽게 접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생활음악이 확대되어 많은 구조를 이름으로서 음악의 구조도 튼튼해지리라 믿는다.

이런 상상들을 해보곤 한다. 우리 부산에 타도시에서 열리지 않는 차별화된 생활음악 축제가 열린다고 생각해 보자. 어느 한 장소를 지정해 그 거리에선 일정한 기간동안 상시 길거리 음악도 괜찮고 정규모대가 차려진 연주도 괜찮다. 연주자들은 음악 축제로 인한 일거리 창출로, 일반 시민들은 여러 장르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어 좋고, 음악축제를 유치한 주최측은 그 거리를 상품화 할 수 있어 좋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머금어진다. 새해에는 부산이 생활음악축제의 도시가 될 날을 상상해 본다.

이제 오카리나 교실이 후반부에 접어 들었다. 그 동안 오카리나의 자세, 운지법, 형인법, Bend 주법 등 여러 가지의 필요사항을 배웠지만 그 중에서 항상 연습해야 할 것이 있다.

1. Long tone 연습을 잊지 말자

아직도 오카리나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부드럽게 부는 방법만 익혀 음량의 크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리로 인한 자신감이 없어서 연주자세까지 무너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좀더 자신감 있게 배에 힘을 주고 눈의 시선을 멀리 보며 긴음으로 크게 불어 보라"고 이야기할 하곤 한다. 소리의 명확성, 음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먼저 연주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2. 정확한 운지

손가락은 조금 눌린 상태에서 손목은 둥글게 손 끝은 특히 힘을 실어서 연주함으로써 좋은 음색과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있게 된다. 특히 초보 연주자면 더욱이 손 끝에 신경을 쓰야 한다. 손 끝에 힘을 실었을 때와 힘을 빼고 운지 했을 때를 비교하여 연습해 보면 확연하게 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

한 연주단체의 연주회에서였다. 참 연주도 좋고 자세도 좋게 보였지만 악기를 연주하는 손

가락의 배열상태를 보는 순간 그 좋았던 연주가 실망으로 바뀌었다. 손가락을 세워서 연주하는 모습은 연주전체가 힘이 들어가 보임은 물론 빠른 연주에서 리듬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3. 연주의 조미료 Bend

이런 생각을 가끔 한다. 오카리나 처럼 쉽게 배울 수 있는 악기가 있을까? 그러나 어느 수준까지 너무 쉽게 달려오지만 조금 오카리나를 재밌고 멋지게 연주할 단계에 오려면 꼭 필요한 단계가 있다. 그 중에서 하나인 이 Bend 주법은 어렵지도 않고 쉽게 낼 수 있다는데 그 매력이 있다.

Bend 주법이란 하나의 음, 그 중에서도 고음에서의 음을 부드럽게 내는 방법이다. 즉 소리 내고자 하는 음을 조금 낮은 피치에서 정상의 음 피치에 이르게 되는 연주기법이다. 이 연주기법을 익히게 되면 그 곡의 부드러움은 물론이요, 곡의 세련미까지 더하게 될 것이다. Bend를 익히기 전의 곡을 Bend 주법을 익힌 후 연주하며 비교해 보자. 확연히 달라진 소리를 낸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4. 올바른 자세

Long tone 연습으로 소리를 만들고 정확한 운지로 음정을 잡으며, Bend 주법으로 곡의 세련미를 더 하고, 여기에다 올바른 자세가 더해진다면 오카리나를 잘 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한 예로 유명한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져 예전실력을 발휘하지 못 할 때면 코치로 부터 맹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자세 교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기본기가 잘 되어있다 하여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그 기본기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오카리나에서도 연주시 팔(오른쪽)은 들어서 연주하며, 발은 어깨넓이로 벌린상태(한 발은 뒤로 보낸 모양)에서 연주하며, 눈의 시선은 정면보단 조금 높게 처리하면 자신감 있는 연주자의 자세로 보이게 된다. 바른 연주자세가 되었는지의 확인은 거울을 보며 연습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5. Slow Slow- Quick

초보연주자에게 특히 필요로 하는 연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연습을 보면 곡도 채 익히기 전에 빠른 럽토로 연습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된다. 어느 지점에서 요즈음 음악의 Maderato 개념이 바뀌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그 만큼 많이 빨라졌다는 이야기이다. 방송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음악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의 Tempo 빠르기로 흘러나오니 자연히 아이들도 빠르게 연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믿는다.

하지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인지 아직 연습도 되지 않은 곡을 그저 빠른 Tempo로 연주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연주자들의 공통점은 빠른 연주가 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상은 Tempo가 무너져 있으며 그 곡을 조금 느린 Tempo로 했을 때도 안되는 경우가 있다. 오직 연습은 Slow Slow- 한후 Quick로 전환하자.

연극과 옷

유상훈 · 연극배우

우리 인생살이에 옷이 날개란 말이 있다. 연극은 인생의 축소판이라 하니 어찌 옷이 아니 중요하겠는가. 더구나 길어야 두 세시간의 공연은 삶에 비기자면 첫 만남 첫 인상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인상이 되어 버리는 경우이니 그 중요성은 가히 짐작이 간다. 그렇다고 연극에 있어서 옷은 의상을 주로 한 패션쇼와는 또 다르다. 연극은 종합적인 시각예술로서 staff적 요소, 즉 무대장치나 의상, 음악, 조명 등은 결국 배우의 대사나 움직임 심리 등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다시 말해 인물이 이끌어 가는 구성 속에서 튀어서도 안 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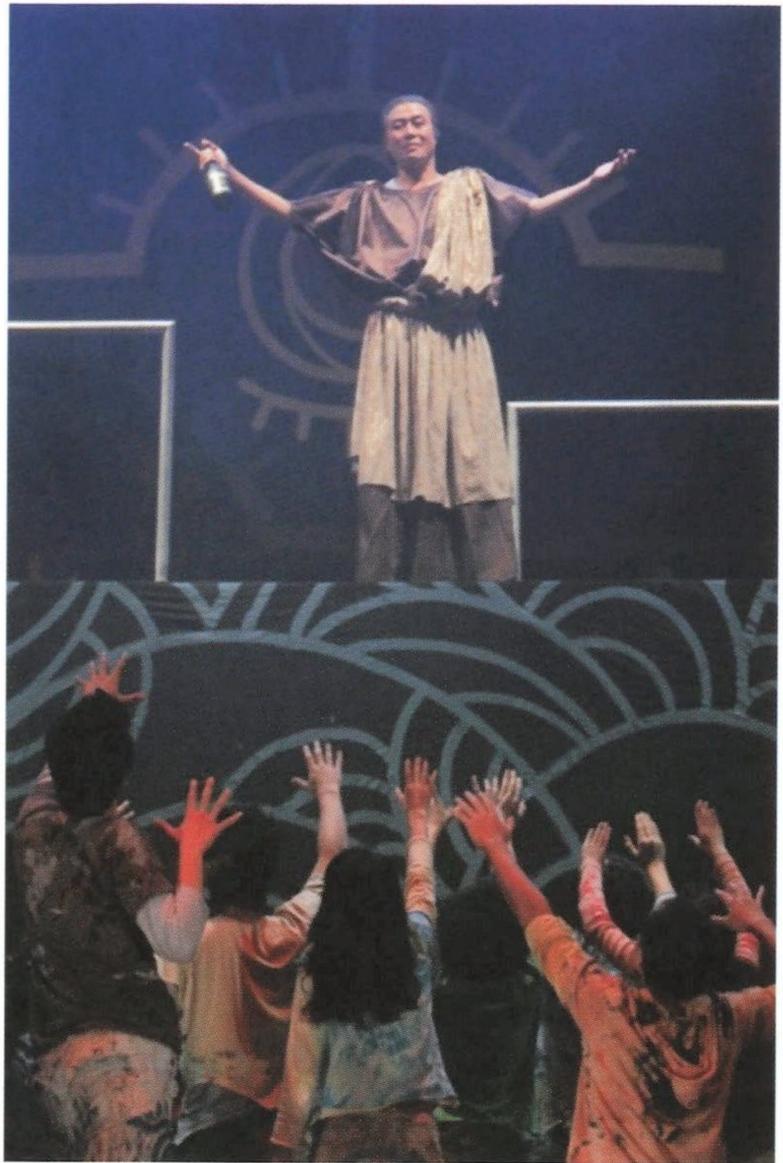
연극을 시작하던 무렵 어느 유명 공연의 무대진행 staff일을 잠시 맡은 적이 있다. staff일이라 해 봐야 지금도 그렇지만 부산 시민회관 소극장 바(bar)의 줄이 수동식이라 이를 손으로 당겨 무대 설치물 인지 뭔지를 한 두어 번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일이었다. 그 나머지 시간은 무대 옆 중간막 뒤에서 저명한 배우들의 연기를 훑쳐보는 것이었다. 그날 공연이 끝나고 작은 주연자리가 있었는데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가 의상으로 입던 자켓을 그냥 입고 그 자리에 있었다. 난 멀찌감치 떨어져 그를 바라보며 생각하길 '저 배우는 무대의 느낌을 일상에서도 놓지 않기 위해 저 옷과 분위기를 유지하려 하는구나...' 생각했다.

연극을 시작한지 한 십여년이 지나고 난 매일 같은 사람과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연습장에 어제 입던 옷을 다시 입고 나타나지 않았다. 그나마도 반복의 시간에 변형을 주고 싶었다. 그렇게 이삼개월 언어와 이미지가 형성되어 가는 연습 속에서 공연 날이 다가오면 드디어 의상을 만난다. 무상(無像)의 형태가 시각적으로 구체화되고 선명해지는 순간이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극의 어떤 정형성에 눈을 뜨기도 한다.

당시만 해도 역사극이 아니고서야 대체로 자기의상은 자기가 구하는 게 부산의 추세였고 간혹 제작 측과 배우가 반반 옷값을 부담하여 공연이 끝나면 그 옷을 배우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 연습을 하다보면 그 인물에 어울리는 색깔, 무늬, 모양 등의 윤곽이 떠올라 그러한 옷을 사거나 유사한 것을 구해보면 참 잘 맞아 떨어질 때가 있었다. 그러한 옷은 공연이 끝나도 오랫동안 간직하게 된다. 어떤 경우엔 연습복으로 계속 입던 옷이 공연장까지 이어가는 수도 있었다.

연극을 시작한지 이십 여 년이 흘렀다. 이제는 한 작품의 연습기간 내내 겹옷을 거의 바꾸어 입지

얇고 다니는 것 같다. 게을러진 탓도 있고 새로운 것을 쉽게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탓도 있으리라. 벗어놓은 신발이 그 사람보다 더 그 사람 같을 때가 있다. 잠시 남의 옷을 걸쳐보고 숨겨진 그 사람의 체온을 처음으로 느낄 때도 있다. 예수님의 성의(聖衣)에 손만 닿아도 병이 나았다고 하지 않은가. 그렇게 입은 주인을 닮기도 품기도 하면서 올렸던 무대 위의 지난 옷들을 지금도 난 무대 밖에서 종종 입고 다닌다. 그때 그 유명 배우가 그랬던 것처럼.



2006년 전국연극제에 부산대표로 참가한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Play 5'

어떤 배우는 공연 때마다 자신의 의상을 다림질하고
 깎고 신주(神主) 모시듯 하는 이가 있는가하면 마음

에 들지 않아 공연 직전에 기어코 모양의 일부를 의상담당도 모르게 뜯어 고쳐 입고 무대에 나가는 배우도 있다. 한겨울 공연 때 마다 속옷을 벗어 땀을 짜내고 저녁공연을 준비한 적이 있고, 한여름 두터운 외투와 다음 등장 of 빠른 변신을 위해 안에 다른 옷을 받쳐 입고 무대로 달려 나가도 관객의 시선에 소름이 끼치는 냉기를 느낀 적도 있다. 아무튼 꿈이요, 이상(理想)이요, 반성인 무대는 올려지고 그 순간까지 배우는 옷과 소품과 잡다한 심리적 정리를 한다. 그리고 무대에 서면 배우는 옷이나 소품 등 수많은 것들을 던지고 관객과 상대배우와 더불어 그 순간 바로 거기서 4차원의 벽을 두드리는 장정(長程)에 들어간다.

2007년 부터 연극배우 유상훈 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연극속으로' 안내합니다. 연극배우로서 무대에서 경험하는 재미있는 작업이야기, 배우로서의 고민 등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연극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연극속으로를 집필해 주신 변미선 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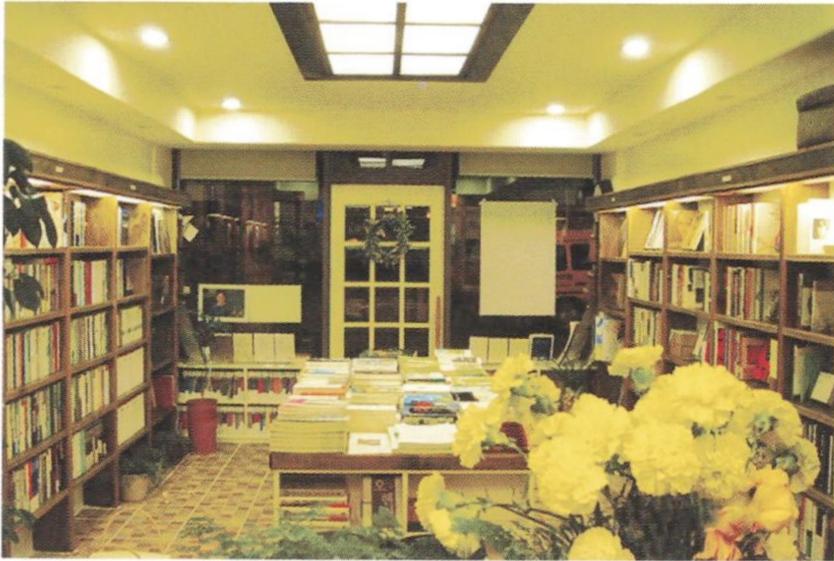
행복한 책임기로 건강한 사유를 키우는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서원**

인디고(indigo), 쪽빛을 내는 천연 식물염료를 가리키는 말로, 기성세대에 물들지 않는 청소년의 순수한 꿈과 열정을 비유한 말, 혹은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아이들로, 창조적인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 의례적인 행식들 앞에서는 좌절감을 느끼며 부모나 선생, 혹은 어른의 이름으로 내세우는 절대권 위에 견딜 수 없어하는 자립적인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 서원'은 행복한 책임기를 통해 건강한 사유를 키우는 청소년들의 열린 문화공간이다. 대학시절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수업을 가져온 허아름씨가 2004년 6월 열흘간의 유럽여행길에서 만난 서점들을 둘러보다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서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돌아온 후 바로 그 해 8월 문을 연 곳이 이 곳 인디고 서원이다.

13평의 아담한 공간에 자리잡은 서가에는 15여년 넘게 독서수업을 이끌어온 허아름씨가 독서수업을 통한 토론과 평가를 통해 직접 선별한 도서들이 문학, 역사·사회, 철학, 교육, 예술, 생태·환경 등 주제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일반 서점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베스트셀러나 참고서를 찾아 볼 수 없는 것도 이 곳만의 특징이다.

인디고 서원이 단순히 서점으로서의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매달 한 차례 열리는 세미나 '주제와 변주'는 책으로만 만난 저자를 직접 초청, 저자와 더불어 대화와 토론을 펼치는 특별한 자리이다. 그동안 '소설 속의 철학' 저자인 부산대학교 이왕주 교수를 시작으로 진중권, 최재천, 한홍구, 박정



13평의 아담한 공간에 자리잡은 서가에는 문학, 역사·사회, 철학, 교육, 예술, 생태·환경 등 주제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인디고서원은 매달 한차례 책으로만 만난 저자를 직접 초청, 저자와 더불어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세미나 '주제와 변주'를 펼친다.

대, 김용석, 장영희, 강수돌, 조병준, 황경신, 도정일, 김홍희, 성석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인디고 서원을 찾아 청소년들과 열띤 대화를 나눴다.

'주제와 변주'는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일반시민들까지 보통 40~50여명이 참석한다. 누구나 신청하면 참석할 수 있지만 알찬 토론을 위해 그 달 참석하는 저자의 저서를 읽는 것은 기본이며, 반드시 질문을 한가지씩 준비해와야 한다. 지금까지 22차례 펼쳐진 이 세미나는 일부 책으로도 묶여져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열띤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2007년 첫 '주제와 변주'는 방학기간을 이용, 지금까지와는 달리 서울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독서토론이라는 형식에서도 벗어나 두가지 이상의 장르를 넘나드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되는 전시장을 찾아 새로운 형태의 '주제와 변주'를 가진다.

이밖에도 인디고 서원에서는 격주 수요일에는 대학생 이상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토론회 '수요 독서회'가, 네째주 수요일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세미나'가 펼쳐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인문교양지 '인디고잉(INDIGO+ing)' 역시 인디고 서원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 지난 8월 28일 첫 창간호를 낸 '인디고잉'은 기획에서 취재, 기사작성, 편집까지 전 제작과정을 청소년들이 직접 꾸려나가는 격월간지이다. 현재 8명의 청소년기자가 활동하고 있는 인디고잉은 3호까지 발간했으며, 오는 1월말 '예술'을 주제로 한 4호가 발행될 예정이다.

12월 31일 가람아트홀에서는 '인디고잉' 정기구독자를 초청, '인디고잉 콘서트'를 가진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지난 12월초 인디고 회원인 10여명의 청소년들로 결성된 인디고합창단과 가수 이상은, 대표 허아람씨 등이 출연, 송년의 아쉬움을 인디고 가족들과 함께 나눈다.

인디고서원 외에도 인디고 가족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어린이를 위한 전용도서관인 '인디고 아이들'과 허아람씨의 독서수업이 진행되는 독서교실 등이 서원 주위에 자리잡고 있다. 지금은 흩어져 있는 이 공간들을 한자리에서 운영하기 위해 내년 2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의/인디고서원(628-2897, www.indigoground.net)

팬플룻 선율과 사랑에 빠진 부산팬플룻사랑



‘부산팬플룻사랑’은 온라인모임 동지를 틈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오늘의 카페’로 선정되는 등 채 2년이 되지 않는 짧은 역사에도 활발한 동호회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해 시작된 ‘부산팬플룻사랑’은 부경대학교 재학시절 팬플룻 동아리 ‘소리향기’에서 활동했던 배종모, 정재욱, 김경훈 등 세 사람이 팬플룻의 매력을 일반인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결성한 동호회이다. 지난해에는 온라인모임 동지를 틈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오늘의 카페’로 선정되는 등 채 2년이 되지 않는 짧은 역사에도 활발한 동호회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악기가 바로 팬플룻”이라는 ‘부산팬플룻사랑’ 회장 정재욱씨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솔직함이 팬플룻의 매력’이라고 한다.

‘부산팬플룻사랑’은 ‘팬플룻’이라는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동호회 특성상 오프라인 모임을 매주 목요일 시민회관 연습실에서 갖고 있다. 정기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는 회원수만 30여명. 젊은 층이 주 회원인 여타 동호회와는 달리 30~40대 회원을 중심으로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활동하고 있어 가족같은 분위기를 자랑한다.

부산팬플룻사랑은 팬플룻을 좋아하고 배우겠다는 열의만 있으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팬플룻을 처음 접한 초보라 해도 정기모임에 참석하면 친절하 1:1 수업을 받을 수 있으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목관악기 팬플룻, 나무 특유의 서정적이면서도 목가적인 소리로 사랑받는 팬플룻은 1970년대 중반 루마니아 출신 연주자 게오르그 장피에르의 연주곡 ‘외로운 양치기’가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으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주로 대학가 동아리를 통해 알려지던 팬플룻은 그 아름다운 선율에 반한 사람들이 차츰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 팬플룻동호회가 결성되어 팬플룻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다.

2005년 7월 인터넷 온라인모임을 통

며, 악기가 없는 회원들에게는 대여도 해준다.

오카리나 연주자로 개인 독주회도 가졌던 백승언(50세)씨는 오카리나 연주회에서 만난 팬플룻 선율에 빠져 지난해 12월 회원에 가입했다. “똑같은 음을 내더라도 연주자마다 다른 느낌을 주는게 팬플룻”이라는 그는 의사로 바쁜 일정속에서도 병원에서든 팬플룻을 놓지 않는 연습광이기도 하다.

몇 년전 타 동호회에서 팬플룻을 배운 적이 있었다는 전향순(33세)씨는 당시 몸담고 있던 동호회가 문을 닫으면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지난해 심기일전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산팬플룻사랑’과 인연을 맺은 그는 5살된 자녀에게도 팬플룻을 쥐어줄 정도로 팬플룻 매력에 빠져있다.

지하철 공연을 통해 팬플룻의 선율을 접했던 회원 김철우(46세)씨. 동호회 활동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에 정기모임 참석을 꺼려했지만 가족같은 분위기와 팬플룻을 배우는 재미에 동호회 활동이 즐겁기만 하다. 가족으로부터 성격이 밝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그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연주를 통해 푼다.

‘부산팬플룻사랑’을 결성한 3인방 중 한명으로, 현재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훈씨는 “최근들어 팬플룻이 알려지면서 대중화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줌으로서 팬플룻이 ‘악기’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한다.

‘부산팬플룻사랑’은 지난 9월 17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첫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정기무대를 준비하면서 자주 만나 연습을 하고 앙상블을 맞추는 동안 자연스럽게 회원들간에 정도 쌓이고 회원들의 실력도 쑥쑥 늘어났다.

이밖에도 ‘부산팬플룻사랑’은 회원 발표회와 온천천 아티스트 공연, 불우이웃돕기 바자회(해운대 사회복지센터 주관), 김해숲길마라톤 찬조공연, 가을한마당 문화행사(철도공사 부산지사 주관), 애광의 밤 축하공연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시민과 만나왔다.

앞으로는 기존의 회원 발표무대와 정기연주회 외에도 일반 시민들에게 팬플룻을 알릴 수 있는 열린무대에 더욱 자주 설 계획인 ‘부산팬플룻사랑’은 팬플룻의 무한한 매력을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 팬플룻 동호회와 연계, 연합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부산팬플룻사랑(cafe.daum.net/pusanpanflute)



30~40대를 주축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활동하고 있어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부산팬플룻사랑은 매주 목요일 시민회관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지난 9월 17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첫 정기연주회를 가진 부산팬플룻사랑은 앞으로 다양한 무대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팬플룻의 매력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부산미술협회 이사장으로 재선된

송영명 이사장



“1,500여명 미술협회 회원의 뜻을 모아야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 만큼 지난 3년간 못 다한 일을 점검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부산미술협회 사상 처음으로 이사장직 연임에 성공, 2007년 1월부터 3년간 제 27대 부산미술협회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다시 맡게 된 송영명(63)이사장은 2007년 정해년을 맞는 각오가 남다르다. 연말연시에도 선거 공약을 재검토하며 새로운 임기를 준비한다.

송영명 이사장이 임기중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려운 미술협회 가족들의 복지이다. 임기중 미술협회 기금으로 5억을 확보해 회원 창작 활동 지원금을 점차 확대하고 미술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2006년 창립 60년을 맞은 부산미술협회가 범시민적인 미술단체

로 거듭나기 위해 중장기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있다.

송영명이사장이 구상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는 낙동강 하구언과 바다를 지닌 부산지역의 특성을 살려 친환경 해양문화벨트를 조성하여 부산을 세계적인 미술문화관광 도시로 만든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살려 해안가에 폐선을 띄우고 여기에 전시장을 만든다면 자연 속에서 훨씬 미술을 친숙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의 구상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만큼 임기 중 터전을 닦아나간다는 생각으로 미술협회 회원들과 뜻을 모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0월, 송영명 이사장은 전시공간을 갖춘 작업실 ‘송 아트홀’을 마련했다. 요즘 작가로 작업할 시간이 부족해 아쉬움이 많지만 늦은 밤 틈틈이 ‘송 아트홀’에 들러 작업을 하고 있다. 송영명 이사장은 앞으로 전시공간이 필요한 작가들에게 ‘송 아트홀’을 개방할 생각이다.

부산연극협회 지회장으로 재선된

김 동 석 지회장



“지난 3년동안 메세나 활동을 가져오면서 지역 창작극의 활성화와 연극인 창작활동 지원에 미약하나마 기쁨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극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3년의 재임기간을 채우고 다시 부산연극협회 지회장으로 선출된 김동석 지회장. 2007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그동안의 경험을 되살려 새 사업구상에 한창이다. 김동석 지회장은 지난 재임기간동안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 부산연극협회가 재정적 자립을 일구어내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창작의 열정을 펼치는 지역 연극인들의 의욕을 북돋울 수 있었다.

우선 부산연극제에서 우수한 기량을 선보인 개인 수상자들의 수상금액을 대폭 확대한 데 이

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연극인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연극인상’을 2006년 처음 제정해 연출가 김만중 씨가 첫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의 연극인상’은 10년간 상금을 미리 조성하기도 했다.

지역 연극인들의 창작의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부산연극제 경연작 참가작을 ‘창작 초연극’으로 제한한 것도 당초 힘들지 않겠느냐는 주위의 우려를 떨쳐내고 첫 해였던 2004년에는 5편, 지난해 2005년은 6편, 올해는 모두 10편의 창작희곡이 출품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78년 부산레퍼토리시스템 단원으로 연극활동을 시작한 김동석 지회장은 1998년부터 대표로 활동해오다 2003년 부산배우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때 연극활동을 중단하고 식품과학과 박사과정을 마쳤던 그는 현재 경남정보대학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경성대학교와 동주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다. 연극인들이 마음 편히 작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가 자신의 역할이라는 김동석 지회장. 또 다시 부산연극협회 지회장으로 펼쳐나갈 그의 활동에 기대가 모아진다.

2007 부산국제음악제

1월 23일-2월 3일 부산문화회관, 그랜드 호텔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함께 하는 실내악의 향연으로 겨울 부산음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부산국제음악제 세 번째 무대가 오는 1월 21일 막이 오른다.

2005년 부산아트매니지먼트의 기획으로 시작된 부산국제음악제는 부산에서 자주 만날 수 없는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초청해 다양한 장르의 실내악을 연주하고 부산의 음악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뮤직 아카데미를 개최해 큰 호응을 받아 왔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비올리스트 최은

식이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3회 행사 부터는 문정수 전 부산시장을 중심으로 부산국제음악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아시아 최고의 실내악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도약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2007년 부산국제음악제를 통해 부산을 찾는 연주자는 모두 15명. 한국인이 사랑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과 비올리스트 최은식 부부, 이태리 디노 치아티 국제콩쿠르에서 1위한 스페인 소피아 왕립 고등음악원 교수 피아니스트 클라우디오 마르티네즈 메너, 롱 티보 콩쿠르 우승자로서 프랑스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올리비에 가르동, 야사 하이페츠의 마지막 제자이자 인디애나 폴리스 콩쿠르 심사위원인 바이올리니스트 피에르 아모얄, 뉴 잉글랜드 음악원 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루시 스톨츠만, 일본 정상의 바이올리니스트 요코 다께자와, 인디애나 폴리스 콩쿠르 출신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예후디 메뉴힌의 수제자 비올리스트 폴 콜레티, 세계적인 명 비올리스트이자 지휘자인 오야마 헤이치로, 제네바국제콩쿠르에 우승한 정 트리오의 첼리스트 정명화, 영국출신의 정상의 첼리스트 콜린 카, 첼리스트 폴 말레인, 줄리아드 음대 교수인 명 클라리네티스트 찰스 나이드히, 호른니스트 김영률 등 화려한 스타 군단으로 이뤄진 실내악 드림팀이 제 3회 부산국제음악제에서 빛나는 테크닉으로 실내악의 짜릿한 묘미를 들려준다.

부산국제음악제 일정

1월 23일 부산국제음악제 스타 연주자와 부산신포니에타와의 만남

1월 25일 오프닝 콘서트

1월 27일 가족음악회

1월 30일 축제음악회

1월 31일 라이징 스타 시리즈

- 오현정 피아노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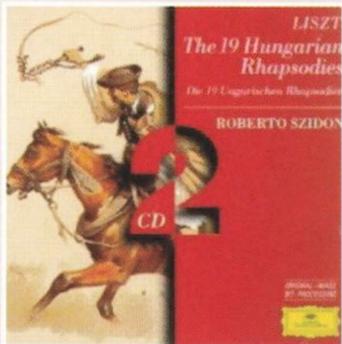
2월 1일 피날레 콘서트

2월 2일 교수·학생음악회

2월 3일 후원자를 위한 <디너콘서트>

소품(小品, piece)의 세계3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리스트의 헝가리언 라프소디 19곡이 수록된 피아니스트 Roberto Szidon의 음반

바이올린의 귀재 파가니니(Paganini, 1782-1840)는 바이올린 독주곡 '카프리치오'를 써서 세상을 놀라게 했고, 베버(Weber, 1786-1826)는 포제악적 소품으로 유명한 피아노곡 '무도회의 권유'를 썼다. 오페라의 천재 롯시니(Rossini, 1792-1868)는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등 무려 180여곡에 달하는 소품을 쓰는 기염을 토했다. 멘델스존(Mendelssohn, 1809-1856)은 '무언가'를 썼고, 슈만(Schumann, 1810-1856)은 '토카타' '녹턴' '음악수첩' '환상 소곡집'과 '노벨레테' 등을 썼다.

넘치는 시적 감성으로 독특한 피아니즘의 지평을 연 쇼팽(Chopin, 1810-1849)은 개성적 소품 세계에서는 대가라할만 하다. '녹턴' '전주곡' '발라드' '연습곡' '마주르카' '왈츠' '폴로네이즈'가 이를 증거 한다. 바찌니(Bazzini, 1818-1897)는 바이올린을 위한 소품 '요정의 춤'을, 비외탕(Vieuxtemps, 1820-1881)은 '발라드와 폴로네이즈', 도플러(Doppler, 1821-1883)는 플루트를 위한 '헝가리 전원 환상곡', 독일의 로맨티스트 라프(Raff, 1822-1882)는 정감 어린 바이올린 소품 '카바티나'를 썼다.

프랑스의 경건한 작곡가 프랑크(Franck, 1822-1900)는 오르간을 위한 전주곡과 환상곡을 썼고, 19세기 유럽 피아노 음악계의 황제였던 리스트(Liszt, 1811-1886)는 '초절기교 연습곡' '연주회용 연습곡', 다수의 헝가리언 라프소디, 수많은 가곡 기악곡 오페라의 편곡, 음악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의 하나로 평가되는 일련의 교향시곡들을 써서 음악계에 신선한 새바람을 일으켰다. 소품의 세계에서 리스트는 단연 으뜸가는 예인(藝人)인 것이다.

보헤미아의 작곡가 스메타나는 '체코 무곡집'과 연작(連作) 교향시곡집 '나의 조국'을 썼고, 브루크너(Bruckner, 1824-1896)는 다수의 전주곡을 발표하였다. 브람스(Brahms, 1833-1897)는 '헝가리 무곡' '환상곡' '전주곡' '간주곡' '카프리치오' '라프소디' 같은 두터운 서정을 담고 있는 소품을 써서 이 분야에서도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생상스(Saint-Saens, 1835-1921)는 '왈츠 형식의 연습곡'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하바네라' 등의 매력적인 소품을 썼고, 발라키레프(Balakirev, 1837-1910)는 동양적 환상곡 '이스라메이', 바다르체프스카(Badarczwska, 1838-1861)는 만인의 애청곡 '소녀의 기도'를 발표했다. 무소르그스키(Mussorgsky, 1839-1881)는 포제적 성격이 강한 피아노 소품 '크리미아의 남쪽 기슭에서'를 통해 러시아의 서정을 그렸고, 차이코프스키는 다수의 피아노 소품집과 '로맨스' '우울한 세레나데'를 써서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렸다.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07 신년음악회

1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임지은

2007년 정해년 새 출발을 알리는 힘찬 선율로 새해를 맞는 기쁨을 들려줄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07 신년음악회'가 1월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화음챔버 단원인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은, 한양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박정원, 부산시립교향악단 트럼펫수석 드미트리 로카렌코프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특히 육군 군수지원사령부 군악대와 해군 제 3함대 사령부 군악대가 특별출연,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경쾌한 선율로 새해의 힘찬 출발을 알린다.



박정원

미국 줄리아드 음대 장학생으로 학사, 석사,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럿거스대학과 클리블랜드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은 뉴욕 카네기홀과 뉴욕 링컨센터 앨리스 텔리홀, 워싱턴 D.C 케네디센터에서 데뷔무대를 가졌으며, 아티스트 국제콩쿠르 1위, 줄리아드 콩쿠르 1위, 키와니스 콩쿠르 대상, 플로렌스 후드 트로피, 요크 리전 콩쿠르 2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 임지은은 생상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을 들려준다.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한양대학교 성악과와 미국 줄리아드 음대 대학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박정원은 세계 최대 콜롬비아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사 소속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해왔으며 마담 버터플라이 콩쿠르 입상, 엔리코 카루소 콩쿠르 입상, 볼티모어 오페라 콩쿠르(푸치니상), 엘레노 스티버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수상한 바 있다. 박정원은 구노의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김동진의 '신아리랑'을 노래한다.

러시아 그네신 음대와 모스크바 국립 콘서바토리를 졸업한 트럼페터 드미트리 로카렌코프는 모스크바 국제 트럼펫 콩쿠르에서 3위 입상했으며 말리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볼쇼이극장, 모스크바 심포니 트럼펫 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드미트리 로카렌코프는 아름다운 악성과 기품있는 멜로디로 자주 연주되고 있는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내림 마장조'를 들려준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7회 정기연주회

겨울 몽상

1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월 5일 신년음악회에 이어 1월 12일 제 427회 정기연주회 '겨울 몽상'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다시 만난다.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비올리스트 최은식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연주회 부제이기도 한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제 1번 사단조 작품 13 '겨울 몽상'과 20세기 최고의 작곡가로 평가받는 알프레드 슈니케의 '비올라 협주곡'으로 한겨울의 정서와 어울리는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비올리스트 최은식은 지난 2005년 창립된 부산국제음악제 음악감독으로 부산과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다. 서울예고 재학 중 LA필하모닉 수석 비올리스트 하이치로 오야마와 정명훈에게 발탁되어 미국 캘리포니아 크로스 로드 예술과학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비올리스트 최은식은 졸업 후 커티스음악원을 거쳐 보스턴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어에서 아티스트 디플롬을 획득했다. 최은식은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어 교수로 있으면서 보르메오 4중주단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신시내티 칼리지 뮤직 콘서바토리어, 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와 에머넷 현악4중주단 단원으로 활동했다.

협연자 최은식이 들려주는 슈니케의 '비올라 협주곡'은 1985년 작곡된 그의 대표곡으로, 당시 뇌졸중으로 고통받던 작곡가의 고통과 고뇌가 잘 표현되어 있다. 느리게 시작되는 제 1악장은 어둡고 묵직한 색조와 그 속에 드리운 슬픔의 무게가 비올라의 음역으로 폭넓게 표현되며, 죽음으로 향하는 모습을 그린 제 2악장은 화려한 색채감과 불협화음의 불가항력 이, 피날레인 3악장에서는 삶의 추억과 상실에 대한 비탄함이 그려져 있다.

차이코프스키의 초기작으로, 전통적인 4악장 형식을 취하고 있는 교향곡 제 1번 '겨울 몽상'은 제 1악장과 제 2악장에 '겨울여행의 몽상', '음산한 땅, 안개의 땅'이란 표제가 붙어 있어 '겨울'로 상징되는 조국 러시아의 국토와 자연에 대한 애착이 표현된 작품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작품은 국민악파의 작곡수법과 민요풍의 선율이 작품 전체에 흐르고 있으며 특히 마지막 악장에서는 대중의 혁명가를 사용하는 등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실천한 나로드니키(Narodniki)적 성향이 잘 나타나 있다.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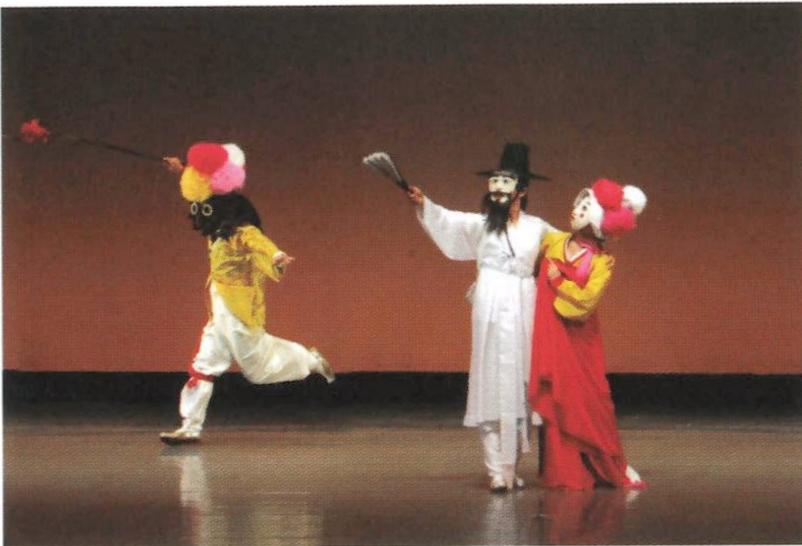


최은식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07 우리춤 산책

1월 17일-18일 수-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평소 우리 춤의 기량을 갈고 닦아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빼어난 춤사위를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07 우리춤 산책'이 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태평무(제 92호), 동래야류(제 18호) 등 중요무형문화재 작품과 다양한 우리춤을 함께 구성, 우리 춤의 멋과 신명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첫날인 17일에는 대감놀이를 시작으로 산조춤, 고성오광대, 태평무(강선영류), 입춤, 소고춤이, 18일에는 오고무, 산조춤, 장고춤, 태평무(한영숙류), 합죽선 산조춤, 동래야류 중 '할미과장'이 펼쳐진다.

경기도 도당굿과 전라도 당굿의 무당춤을 기본 춤사위로, 변화무쌍한 춤사위와 요염한 교태미, 관객의 신명이 어우러지는 대감놀이는 오숙례가, 봉건사회의 부조리를 꼬집는 고성오광대 말뚝이춤(2과장)은 허태성과 강모세, 이창규, 류권홍, 최의옥, 김윤호(악사)가 선보인다. 그외 이창규는 우리나라 전통무용의 기본춤으로 자유자재로 춤사위를 풀어내는 입춤을, 서정숙, 정진희는 몰아치는 장단과 흥겨운 가락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소고춤을 선보인다.

5개의 북으로 우리의 가락을 장구 장단에 맞춰 신명나게 두드리며 추는 춤인 오고무는 김공주와 이창규, 김윤호, 허태성, 최의옥(악사)이, 농악 설장고를 바탕으로 다양하면서도 변화가 많은 장고가락을 구사하면 추는 장고춤은 윤은하가, 가야금 산조가락에 맞춰 합죽선을 들고 추는 춤으로, 섬세함과 애절함, 우아함을 표현하는 합죽선 산조춤은 권봉정의 춤으로 만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18호 '동래야류' 중 서민적인 삶의 해학과 애환이 돋보이는 '할미과장'은 장래훈, 이성원, 김병주, 이정식, 강모세가 김기원, 박상용, 이창규, 허태성, 류권홍, 최의옥, 김윤호의 연주에 맞춰 익살스런 춤사위를 펼친다.

■ 입장료 : 균일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3회 정기연주회 신년음악회 3색음악회 歌, 舞, 樂

1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희망찬 2007년을 맞아 정해년 안녕을 기원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3회 정기연주회 '신년음악회-3색음악회 歌, 舞, 樂'이 1월 2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유경조 악장의 집박으로 열릴 이번 공연은 노래(歌)와 춤(舞), 연주(樂)가 어우러지는 우리 전통음악의 멋과 흥이 살아있는 무대이다.

첫 무대를 열어줄 '歌'에서는 흥타령,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흥겨운 남도민요를 국악인 지수복과 김정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박성희와 선희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협연자 지수복은 박초월, 김소희, 박귀희, 성금연에게 판소리와 가야금병창, 가야금산조를 사사받았으며 그동안 여성국극단 동지사, 햇님국극단, 새한국극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이수자인 김정애는 현재 (사)동초제 판소리보존회 부산, 경남지회장, 국악협회 부산지회장, 금정국악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박성희는 그동안 판소리 흥부가, 수궁가 완창무대와 서일본신문사 초청 판소리 독창회,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 '즐거워라 무릉도원' 등에 출연해왔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정선희는 원산국악제전 판소리 명창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정정렬제 춘향가 전수조교로 있다.

두 번째 무대 '舞'에서는 태평성대를 기원한 멋과 흥이 담긴 '태평무'와 우리민족의 한(恨)과 슬픔이 담긴 '살풀이'를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흥기태와 부산대학교 이윤자 교수의 협연으로 선보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92호 태평무 이수자로 있는 흥기태는 부산아시아게임 개폐회식 문화행사 지도위원, 조선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마지막 무대 '樂'에서는 산조합주와 수연장지곡, 송구여지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가야금, 거문고, 피리, 아쟁, 해금 등 각 파트별 한 명의 연주자들이 연주하던 산조합주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50여명이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연주한다. 정악의 백미 중 하나인 수연장지곡과 수연장지곡을 한 옥타브로 올려 변주한 송구여지곡을 동시에 연주하는 예전 전통방식의 무대도 마련되는 등 평소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유경조



지수복



김정애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07 신년음악회

5일 금요일 오후 7:30



2007년 신년을 맞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의 지휘로 신년의 기쁨과 환희를 담은 흥겨운 레퍼토리로 신년음악회를 연다.

특히 이번 무대는 아티스트 국제콩쿠르 1위, 줄리아드 콩쿠르 1위, 키와니스 콩쿠르 대상 등 다수의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은, 세계최대 콜롬비아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사 소속으로 미국, 유럽 및 일본에서 활동한 소프라노 박정원,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드미트리 로카렌코프가 협연자로 신년의 메시지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 '후궁으로부터의 탈출' 서곡 작품 384
- 생상/교향시 '죽음의 무도' 사단조 작품 40
- 생상/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28
- 주페/ '경기병' 서곡
- 구노/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 하이든/트럼펫 협주곡 내림마장조 중 제 2, 3악장
- 폰키엘리/ '라 지오콘다' 중 '시간의 춤'
- 스트라우스/페르시아 행진곡 작품 289, 황제 왈츠 작품 437
- 디니쿠/호라 스타카토(나카리아코프 편)
- 김동진/신아리랑
-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작품 20
- 차이코프스키/1812년 서곡 내림마장조 작품 49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임지은(바이올린), 박정원(소프라노),

한양대 교수),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트럼펫,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특별출연/육군 군수지원사령부 군악대, 해군 제3함대 사령부 군악대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제1069회 MBC목요음악회

동아성악가협회 초청 신년음악회

11일 목요일 오후 7:30



2007년 신년을 맞아 처음으로 펼쳐지는 MBC목요음악회.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성악전공 졸업자들 중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졸업자들로 결성된 동아성악가협회가 출연, 우리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오페라 리골레토 하이라이트 무대 등을 펼친다.

프로그램

- 주페/경기병 서곡
-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 베르디/오페라 '운명의 힘' 중 '신이여, 평화를 주시옵소서', 오페라 '춘희' 중 'Alfredo per parigior partiva', 오페라 '맥베드' 중 연민도, 명예도, 사랑도'
- 김규환/신고산타령
-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하이라이트 '그가 나를 저주했네' '질다, 너한테서만' '여자의 마음' '언젠가는 모르지만' 등 수곡
- 반주/동아대학교 동문오케스트라
- 출연/소프라노 민수연, 소프라노 김혜정, 소프라노 김혜경, 바리톤 심정보, 바리톤 박대용, 테너 이흥득, 테너 허동권 메조소프라노 전연숙, 바리톤 이창룡

· 특별출연/박정열(첼로)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김종석(011-887-2956)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27회 정기연주회

겨울 몽상

12일 금요일 오후 7:30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최은식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와 한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비올리스트 최은식이 함께 들려주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7회 정기 연주회.

이번 연주회의 타이틀인 '겨울 몽상'은 러시아의 국토와 자연에 대한 애착을 음악으로 표현한 차이코프스키의 초기 작품으로 국민악파의 작곡 수법인 민요풍의 선율이 작품 전체에 흐르고 있다.

프로그램

- 슈니케/비올라 협주곡
-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1번 사단조 '겨울 몽상' 작품 13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최은식(비올리스트, 서울대학교 교수, 부산국제음악제 음악감독)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부산

14일 일요일 오후 5:00

5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스트리아의 빈 소년 합창단이 들려주는 2007 신년 음악회.

빈 소년 합창단은 세계적인 작곡가 슈베르트와 하이든이 활동하였으며, 베토벤이 직접 반주를 하고 바그너, 리스트, 요한 스트라우



스 등이 자신의 곡을 헌정하기도 한 세계 최정상의 합창단이다.

열 살에서 열 네 살 사이 소년 1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빈 소년 합창단은 오늘날 모차르트, 슈베르트, 하이든, 부르크너 4개의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중세의 교회음악에서부터 최신 팝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시대를 초월한 명곡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민요, 요한 슈트라우스와 모차르트의 유명곡과 더불어 영화음악 등을 선보이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입장료 VIP 88,000원 R석 77,000원

S석 66,000원 A석 44,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올리브 엔터테인먼트(1588-4430)

G솔리스트 첫 번째 콘서트

16 화요일 오후 7:30

그린 닥터스와 함께 지구촌을 섬기는 성악가 앙상블 G솔리스트 첫 번째 연주회.

지난해 6월 창단된 G솔리스트는 각 성부마다 2명씩 8명의 성악가와 1명의 피아니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순회찬양, 찾아가는 음악회, 각종공연 등 10여회의 연주를 가



졌으며 앞으로도 그린닥터스에서 준비하는 북한개성음악회를 필두로 국내외의 많은 연주를 계획하고 있다.

프로그램

성가곡/세상을 바라보라, 날 오라 하신다, 나를 따르라, 주께 가까이, 영광 외치리라, 거룩한 주

민요 가곡/순정아리랑, 경북궁타령, 고향의 봄
팝뮤지컬/Drinking Song, Lion King, 도둑고양이

외국곡/아 목동아, 꿈꾸는 세상

· 출연/소프라노 고예정, 소프라노 이윤정,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테너 전병호, 테너 박찬, 바리톤 김종화, 베이스 손욱, 피아노 윤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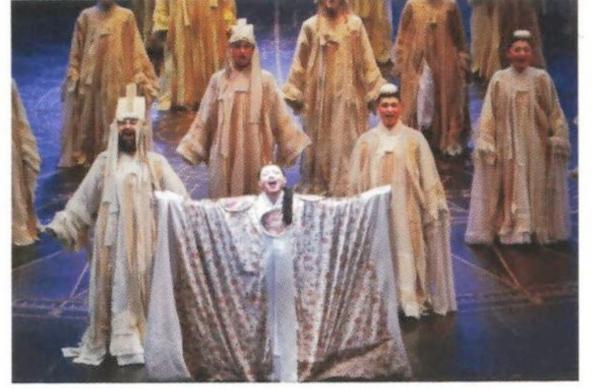
입장료 1층 20,000원 · 2층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손욱(011-9520-4649)

뮤지컬 명성황후

20일-21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

뮤지컬 전문 프로덕션 에이콤이 1995년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초연하여 10년간 한국 뮤지컬 문화 저변확대에 크게 공헌



해온 국민 뮤지컬 명성황후 부산무대.

순수 창작 뮤지컬로 그동안 총 공연 횟수 700회, 국내외 관객 92만 명 동원, 뉴욕 타임즈 2년 연속극찬을 받은 명성황후는 아시아 최초 뉴욕 브로드웨이와 런던 웨스트엔드에 진출, 한국뮤지컬의 신화를 기록했다.

입장료 VIP 99,000원 · R석 88,000원

S석 77,000원 · A석 55,000원

B석 44,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소리엔터테인먼트(755-4545)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3회 정기연주회 신년음악회 '3색 음악회 歌, 舞, 樂'

25일 목요일 오후 7:30



홍기태

이윤자

2007년 정해(丁亥)년 새해를 맞아 우리 전통음악으로 들려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ForAD
종합광고대행사

통합 마케팅 시대의 뉴 브레인! 포애드

광고기획, TV/RADIO 광고제작 및 대행, 신문/전단/카다록 인쇄광고 제작, 기업CIP/BIP,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광고 마케팅 기획

[주]포애드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2층
TEL : 051) 627-2563(대) FAX : 051) 627-2560

신년음악회.

樂, 歌, 舞의 종합형태로 발전해온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살려 가무악을 한자리에서 만난다.

樂부문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처음으로 산조합주와 수연장지곡을 전단원이 연주하고 歌부문에서는 남도민요 중 많이 알려지고 불려지는 노래를 지수복, 김정애, 박성희, 정선희의 창으로 들려준다. 舞부문에서는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홍기태의 '태평무',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이윤자 교수의 '살풀이'를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歌-남도민요 '흥타령,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

舞-태평무, 살풀이

樂-산조합주, 수연장지곡

- 집박/유경조(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 협연/지수복(지수복 판소리연구원 원장), 김정애(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장), 박성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정선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 안무자), 이윤자(부산대학교 교수)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007 부산국제음악제 가족음악회

27일 토요일 오후 4:00



루시 스톨츠만

김영률

세계적인 연주자를 초청, 수준높은 실내악의 향연을 펼치는 2007 부산국제음악제 '가족음악회'.

올해 처음 부산국제음악제에 참가한 스페인 소피아왕립고등음악원 교수 클라우디오

마르티네즈 메너를 비롯 피에르 아모얄, 콜린 카, 폴 말레인, 김영률 등이 화려한 앙상블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2대의 호른과 현악 4중주를 위한 <음악적 농담> K.522(호른/김영률, 바이올린/루시 스톨츠만, 백주영, 비올라/최은식, 첼로/콜린 카)

슈베르트/소프라노와 피아노, 클라리넷을 위한 <바위 위의 목동>(피아노/클라우디오 마르티네즈 메너, 클라리넷/찰스 나이드히, 소프라노/TBA)

브람스/클라리넷 5중주 나단조 작품 115(클라리넷/찰스 나이드히, 바이올린/피에르 아모얄, 루시 스톨츠만, 비올라/최은식, 첼로/콜린 카)

입장료 R석 60,000원 · S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2007 부산국제음악제 축제음악회

30일 토요일 오후 7:30



백혜선

쿄코 다게자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과 바이올리니스트 루시 스톨츠만, 백주영, 쿄코 다게자와 등이 함께 들려주는 축제음악회.

프로그램

모차르트/클라리넷, 피아노, 비올라를 위한 3중주 K.498(피아노/주희성, 클라리넷/찰스 나이드히, 비올라/최은식)

슈만/피아노 4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7(피아노/백혜선, 바이올린/쿄코 다게자와, 비올라/헤이치로 오야마, 첼로/콜린 카)

쇼스타코비치/피아노 5중주 사단조 작품 57(피아노/백혜선, 바이올린/백주영, 루시 스톨츠만, 비올라/폴 콜레티, 첼로/폴 말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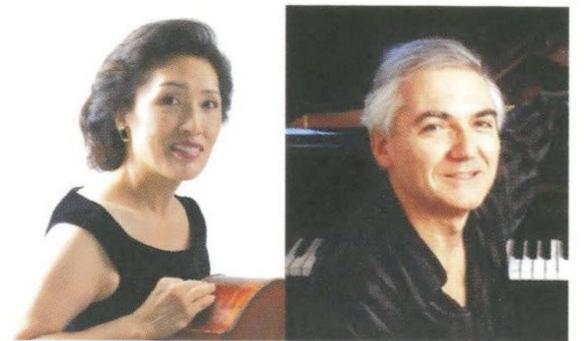
입장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2007 부산국제음악제 피날레콘서트

2월 1일 월요일 오후 7:30



정명화

올리비에 가르동

부산국제음악제의 피날레콘서트로 제네바 콩쿠르 우승자로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정명화를 비롯 롱티보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올리비에 가르동, 인디애나 폴리스콩쿠르에 1위한 바이올리니스트 쿄코 다게자와, 칼프레쉬콩쿠르에 우승한 비올리스트 헤이치로 오야마 등이 화려한 앙상블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3중주 <유령> 작품 70-1(피아노/백혜선, 바이올린/쿄코 다게자와, 첼로/정명화)

포레/피아노 4중주 다장조 작품 15(피아노/올리비에 가르동, 바이올린/백주영, 비올라/헤이치로 오야마, 첼로/폴 말레인)

차이코프스키/현악 6중주를 위한 <플로렌스의 추억>(바이올린/루시 스톨츠만, 쿄코 다게자와, 비올라/최은식, 헤이치로 오야마, 첼로/정명화, 폴 말레인)

입장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코리아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 KNN 신년음악회

2월 10일 토요일 오후 7:30

대한민국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꼽히고 있는 코리아심포니와 마에스트로 오충근, 독일



오페라좌에서 350회 이상 밤의 여왕 아리아로 한국인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프리마돈나 전지영, 그리고 미국 맨하탄과 메릴랜드의 탑위너로 한국을 빛낸 신예음악가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가 함께 빛어내는 KNN 신년음악회.

부산 출신 음악가로 세계 정상 반열의 무대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음악인들의 신선한 감흥을 직접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이탈리아 기상곡
요한 스트라우스/봄의 소리 왈츠
프로코피에프/ '로미오와 줄리엣' 중 '타이볼트의 죽음'

모차르트/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번스타인/ '캔디드' 중 '화려하고 쾌활하게'
스트라빈스키/ 불새 등 수곡

- 지휘/오충근
- 연주/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 협연/소프라노 전지영(독일 오페라좌 주역 가수),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미국 맨하탄, 매릴랜드의 탑위너)

입장료 VIP석 9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KNN방송(1577-7600)

중극장

피아니스트 이아영 귀국 독주회

9일 화요일 오후 7:30



경원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이아영 귀국 독주회.

이아영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Wohnstift Mönchhof에서 독주회, 첼리스트 Dr. Stephan Beckert와 연주회, 독일 뷔르츠부르크 음대에서 바리톤 Johannes Green과 연주회 등을 가졌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 17번 라단조 작품 31
쇼팽/발라드 제 1번 사단조 작품 23
드뷔시/이미지2
슈만/피아노 소나타 제2번 사단조 작품 22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아영(010-6657-9178)

어린이 뮤지컬 빨간 모자

11일-14일 목-금요일 오전 10:00, 11:30, 오후 3:30(목요일 첫회 공연없음)
토-일요일 오전 11:30, 오후 2:00, 오후 4:00



2000년 아스테이지 및 춘천 인형극제 출품작으로 6년간 서울 대학로 및 전국에서 30만명 이상이 관람한 우리 아이 첫 뮤지컬 '빨간 모자'에 이어 극단 문예가 새롭게 선보이는 빨간모자 두 번째 이야기 동심으로의 여행' 부산무대.

세계적인 명작동화 빨간 모자를 재구성한 이 작품은 창조적으로 해석되어 역전된 캐릭터와 톡톡 튀는 리듬과 따라하기 쉽게 작곡된 멜로디 라인, 화려한 악기 편곡, 객석과 무대를 하나로 이어주는 라이브 반주로 재미를 더해준다.

- 연출/이용경 · 음악감독/권일
- 출연/홍성호, 최서림

입장료 R석 18,000원 · S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5% 할인)

문의 나눔기획(744-6997)

**어린이 성교육뮤지컬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15일-18일 월-목요일 오전 10:00, 11:30, 오후 3:30

서울국제어린이연극제 우수상, 극본상, 연기상 수상, 우수 어린이연극 초청공연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어린이 성교육 뮤지컬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문우당서점

Tel: 245-3843(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정문 아지탑앞
(미니몰 건너편)

각종 공연에 매처

통도원타지아, 경주월드, 광안리미널드 연중계속 예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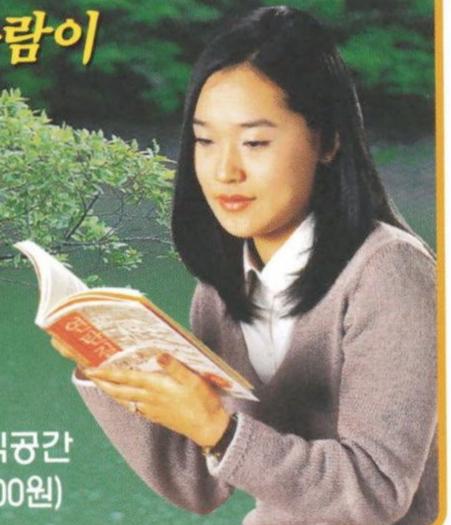
52년의 양심경영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대형종합서점(지하 1~5층) 최대의 종합지도센터

지금부터 ~ 3월까지는 캘린더
그 이후로는 「세계지도」 기타, 선물
'2007' 세계지도캘린더 증정

- ❖ 문우당서점회원카드로 문우당서점과 CGV 영화관까지 공용적립(회원카드 무료발급)
- ❖ 가마골소극장 특정요일할인(50~20%)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층별 : 만남과 휴식공간
(커피 · 코코아 각 100원)



생명의 소중함과 탄생의 궁금함을 뮤지컬로 표현한 이 작품은 누리와 슬기 남매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에 대한 궁금증을 의사 선생님이 노래와 춤, 그리고 소품을 이용해 재미있게 볼거리를 전해 준다.

- 연출/도기륜
- 출연/장해숙, 박선희, 심은미, 황덕학, 이승호

입장료 R석 18,000원 · S석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5% 할인)

문의 나눔 기획(744-6997)

김성희 피아노 독주회

19일 금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귀국한 피아니스트 김성희 귀국 독주회.

김성희는 독일 유학중 독일 도르트문트 Pianosalon 리사이틀,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 독주회, Steinway & Song 150주년 기념 연주회 등을 가졌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작품 2 제 3번
알캉/Saltarelle op.23, Barcarolle op.6
슈만/카니발 작품 9 등

입장료 초대

문의 김성희(010-4844-7469)

부산YMCA청소년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21일 일요일 오후 6:00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 장진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부산 YMCA청소년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음악 교육을 목적으로 1998년 창단된 부산YMCA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연 2회 정기연주회와 소외지역의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서 단원의 연주력 향상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프로그램

주페/경기병서곡
메르카단테/오케스트라와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이수인/고향의 노래
롯시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아리아 방금 들린 그 음성은'

네케/크시코스의 우편마차
하차투리안/칼의 춤
모차르트/교향곡 제25번 KV. 183 등 수곡

- 지휘/장진
- 협연/소프라노 박미경(경성대학교 교수), 백지윤(플루티스트, 부산YMCA청소년오케스트라 플루트 수석)

입장료 초대

문의 장진(010-4579-0115)

2007 부산국제음악제 부산국제음악제 스타연주자와 부산신포니에타와의 만남

23일 화요일 오후 7:30

각 연주분야에서 세계성을 획득한 최고의 음악가들을 만날 수 있는 부산국제음악제. 특히 올해는 부산의 대표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영희를 중심으로 현악 엘리트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부산신포니에타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클라우디오 마르티네즈 메너의 화려한 앙상블이 펼쳐진다.



클라우디오 마르티네즈 메너는 이태리 디노 치아티 국제콩쿠르에서 1위하고 현재 스페인 소피아 왕립 고등음악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프로그램

야나첵/현을 위한 모음곡
모차르트/피아노협주곡 제 13번
레스피기/류트를 위한 고품의 무곡과 아리아 제3 모음곡

- 피아노협연/클라우디오 마르티네즈 메너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2007 부산국제음악제 오프닝 콘서트

25일 목요일 오후 7:30



백주영

폴 콜레티

부산국제음악제 두 번째 무대로 마련되는 오프닝 콘서트.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에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예후디 메뉴힌의 수제자 폴 콜레티가 연주하는 두오무대로 오프닝콘서트의 화려한 막을 연다.

프로그램

헨델/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두오(바이올린/백주영, 비올라/폴 콜레티)
슈만/2대의 피아노, 2대의 첼로와 호른을 위한 안단테와 바리에이션 작품 46(피아노/클라우디오 마르티네즈 메너, 주희성,

호른/김영률 외, 첼로/콜린 카, 폴 말레인)

도흐나니/현악 3중주(바이올린/루시 스톨츠만, 비올라/폴 콜레티, 첼로/정명화)
브람스/피아노 5중주 바단조 작품 34(피아노/주희성, 바이올린/피에르 아모알, 백주영, 비올라/폴 콜레티, 첼로/콜린 카)

입장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28일 일요일 오후 7:30

부산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프로그램

드보르작/교향곡 제 8번
롯시니/윌리엄텔 서곡 등 수곡
· 지휘/박종휘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010-2565-8724)

2007 부산국제음악제 라이징 스타시리즈 오현정 피아노독주회

31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국제음악제 라이징 스타시리즈로 부산 출신의 세계적인 유망주를 초청,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피바디음대와 이스트만 음대에서 음악수업

을 한 피아니스트 오현정은 Academic Internationale du Moulin D'Ande 국제



콩쿠르(프랑스)에서 1위, Margaret Denise Piano Scholarship 콩쿠르에서 1위를 하는 등 세계무대에서 음악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프로그램

하이든/소나타
브람스/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쇼팽/24개의 전주곡 전곡 등

입장료 균일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소극장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07 우리춤 산책

17일-18일 수-목요일 오후 7:30



한국적인 춤사위의 재해석으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면서 우리춤의 기량을 갈고 닦아

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이 선보이는 2007년의 첫무대.

태평무, 동래야류 등 중요무형문화재 작품과 다양한 우리 춤 레퍼토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한국 춤의 아름다움과 멋을 골고루 맛볼 수 있다.

프로그램

• 17일(수) 오후 7:30

대감놀이(춤/오숙례)
산조춤(춤/서현미)
고성오광대(춤/허태성 · 악사/강모세, 이창규, 류권홍, 최의옥, 김윤호)
강선영류 태평무(춤/황선희)
입춤(춤/이창규)
소고춤(춤/서정숙, 정진희)

• 18일(목) 오후 7:30

오고무(춤/김공주 · 악사/이창규, 김윤호, 허태성, 최의옥)
산조춤(춤/김동숙)
장고춤(춤/윤은하)
한영숙류 태평무(춤/이현주)
합죽선 산조춤(춤/권봉정)
동래야류 중 '할미 과장'(춤/장래훈, 이성원, 김병주, 이정식, 강모세 · 악사/김기원, 박상용, 이창규, 허태성, 류권홍, 최의옥, 김윤호)
· 무용감독/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612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느낌이 다른 1:1 피아노교육
www.pianostar.net



1588-7535

수강생, 강사, 지사상담

음악이란 즐거운 소리입니다 - 피아노스타교문 정명훈

- 음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콘서트
- 행사
- 전시

● 주요문화공간

- 가람아트홀(626-6664)
-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톨릭센터(462-187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 국도아트홀(247-4242)
- 금정문화회관(519-5651)
- 글로벌아트홀(505-5995)
- 늘원아트홀(631-0660)
- 너른소극장(622-3572)
- 동래문화회관(550-4481)
-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 민족굿터 신명천지(515-7314)
- 부산민주공원(462-1016)
-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 부산시민회관(630-52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 엑터스소극장(611-6616)
- 열린소극장(555-5025)
- 을숙도문화회관(220-5321~4)
- 추리문학관(743-0480)
- 프랑스문화원(465-0306)
- 40계단문화관(600-4041)
- KBS 부산홀(620-7100)
- MBC아트홀(760-1000)
- SH공간소극장(621-8518)

(※ 가나다순)

음 악

가톨릭센터 토요일객석

바스티안과 바스티엔느

12월 30일(토), 1월 20일(토),
1월 27일(토) 오후 4:00, 7:00
가톨릭센터 소극장

시골의 순박한 소년소녀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모차르트의 오페라 '바스티안과 바스티엔느'로 마련되는 가톨릭센터 토요일객석.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 솔리스트(816-5311)

PBC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가톨릭센터와 부산평화방송(PBC)이 매주 화요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상세한 해설로 들려주는 PBC 화요음악회.

■2일 2007 PBC 신인음악회 I

부산, 김해지역 음악학과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뛰어난 기량의 신인들이 들려주는 2007 PBC 신인음악회 첫 번째 무대. 동의대학교 졸업생, 재학생들이 무대에 선다.

· 출연/이재은(바이올린), 이지현(피아노), 신혜은(성악), 우성수(플룻), 김석근(첼로), 손정민(피아노), 박상문(성악)

· 해설/김윤선

■9일 2007 PBC 신인음악회 II

2007 PBC신인음악회 두 번째 무대로, 경성대학교 졸업생, 재학생들이 무대에 선다.

· 출연/김미정(첼로), 윤오건(성악), 이경은(피아노), 이혜숙(피아노), 정루디아(성악), 정희경(바이올린)

· 해설/오동주

■16일 양산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회



2002년 창단 이후 대한민국 청소년오케스트라축전, 경기도 세계야외공연축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양산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난 10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의 협연무대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지휘/김종진 · 해설/박진홍

■23일 2007 PBC 신인음악회 III

2007 PBC 신인음악회 세 번째 무대로, 고신대학교 졸업생들이 무대에 선다.

· 출연/김혜민(바이올린), 박민경(피아노), 박은아(호른), 안우영(성악), 이은진(피아노), 전샘(성악)

· 해설/황시내

■30일 소프라노 방숙희 독창회



한양대학교 성악과와 카네기 멜로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수원과학대학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방숙희의 살롱 리사이틀 신년음악회.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톨릭센터(462-1870)

여성들을 위한 건강한 음악회

매주 금요일 오전 11:00
글로벌아트홀



매주 금요일 오전 주부와 아기,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글로벌아트홀이 새롭게 마련하는 '여성들을 위한 건강한 음악회'.

- 5일 주부(20~40대)를 위한 음악회
- 12일 임산부를 위한 태교음악회
- 19일 주부(50대 이상)를 위한 음악회
- 26일 엄마랑 아기랑 함께하는 음악회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글로벌아트홀 한낮의 음악회 부산을 찾아온 관광객을 위한 문화 투어 한국문화알리기

매주 수요일 오전 11:00
글로벌아트홀(3일은 공연없음)



매주 수요일 오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글로벌아트홀 한낮의 음악회.

글로벌콘서바토리 교수들이 출연, 2002 아시안게임 공식문화축전 총체무극 '허황후'를 비롯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려준다.

입장료 균일 20,000원(일주일 전 예약자에 한해 식사와 음료 제공)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아가도스합창단 제 2회 정기공연

소년소녀가장돕기 사랑의 음악회

6일 토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2005년 5월 부산위생병원 직원 및 가족들로 결성된 아가도스합창단이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들려준다.

· 지휘/조흥래
· 출연/조혜령(소프라노), 장원상(테너), 고영



호(바리톤), 안진숙(첼발로), 아가도스
합창단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유현두(600-7780)

김해오페라단 창단공연

바스티안과 바스티엔느

11일 목요일 오후 5:30, 7:30

시민회관 소극장

12일-13일 금-토요일 오후 5:30,

7:30 김해 문화의 전당 누리홀

29일-30일 월-화요일 오후 5:30,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감각적인 대사와 생동감있는 연기, 저렴한 관람료 등으로 오페라의 대중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한 소극장 오페라 '바스티안과 바스티엔느'.

천재음악가 모차르트가 12살에 작곡한 이번 작품은 시골의 순박한 소년소녀 바스티안

과 바스티엔느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대화가 있는 음악극이다.

· 제작총감독/임재우
· 음악코치/홍지혜, 오유미
· 출연/김양현, 박연경, 김한나, 김삼희, 김나영(바스티엔느), 방현호, 우원석, 박찬, 구원모(바스티안), 김태형, 이종훈, 고정현, 최현욱(콜라스)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 솔리스트
(816-5311, 010-3038-7191)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7일 영호남 교류음악회
'톱 연주 들어보셨나요?'



톱 연주에 매료되어 직접 톱을 제작하여 독학으로 공부한 톱 연주자 구자봉 초청무대.

정형외과 의사인 구자봉은 톱 연주와 중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 진료 등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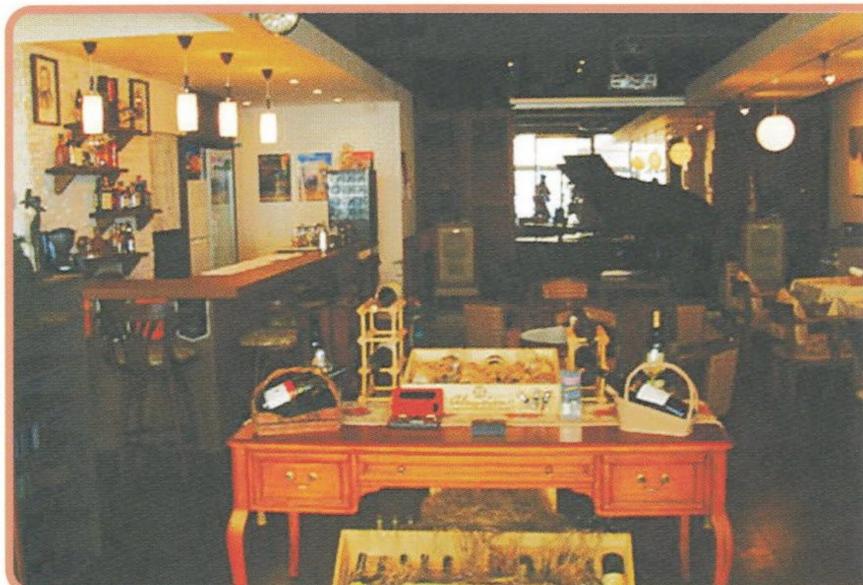
를 위한 무료 진료 등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출연

구자봉(톱 연주), 구복희(피아노), 구성희(소프라노), 박종근(오카리나), 김태경(베이스), 김정희(피아노)

· 해설/오동주

■24일 허브오카리나중주단&해운대어머니 합창단 '허브의 향기'



부산의 새로운 문화공간 콘체르트 하우스

The Classic Wine Cafe

Konzerthaus

- 연주회 및 전시회 유치 및 대관 상담
- 음악, 기악 및 와인 동호회 모임 상담
-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 및 DVD/Project 보유
- MBC 장한나 음악여행 촬영지로 매주 금요일 16시 싱싱뉴스에 10회 방송예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91-2 문화2길 32 (1층)
TEL:051)742-9520, E-mail:konzerthaus@hotmail.net





가장 자연에 가까운 악기인 오카리나 중주와 합창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선율의 무대.

프로그램

Ob-La-Di Ob-La-Da, 엘 콘도로

파사,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직 등 수곡
· 해설/황시내

■31일 토야마 나오코 플루트 독주회

현재 마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토야마 나오코 독주회.



프로그램

앙리 뒤띠에/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바흐/소나타 BWV 1035 등

· 피아노/이소영 · 해설/박진홍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박진홍(017-563-7966)

부산주니어클라리넷앙상블 제 7회 연주회

20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1년 클라리넷을 사랑하는 어린 연주자들로 창단한 부산주니어클라리넷앙상블의 7번째 연주무대.

프로그램

조 히사이시/하울의 움직이는 성

비발디/사계 중 '봄'

이민섭/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등 수곡

· 지휘/김태훈

입장료 무료

문의 김태훈(017-543-0883)

금정 뮤직 페스티벌 Endline

24일 수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지난해 금정구 지역 10대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 무대에 올려 화제를 모았던 금정 뮤직 페스티벌 두 번째 무대. 신나는 힙합무대와 락공연이 펼쳐진다.

· 출연/김수곤, 이지훈, 박호석, 양진준, 노종호, 이우희, 김영창, 김보혜 외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노종호(010-6669-6754)

헤르만 헤세 특별전 축하음악회 영상음악회

25일 목요일 오후 7:30
KBS 부산홀



김보경

전연숙

오는 4월 세계문학의 거장 헤르만 헤세의 삶과 예술세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헤르만 헤세' 부산전을 앞두고 마련한 축하음악회.

영화 삽입곡과 뮤지컬 넘버곡, 오페라 아리아 등이 영상과 함께 펼쳐진다.

프로그램

하바네라(꼬마돼지 베이브), 진도아리랑(서편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별들의 고향), 어떤 개인날(위험한 정사), 메모리(캣츠) 등

· 출연/전연숙, 현주용, 김미성, 김진수, 김보경(성악), 백원석(바이올린), 최광철(색소폰), 이현주(피아노) 외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장애인 무료(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오페라&뮤지컬 (016-9317-4728)

2007 부산국제음악제 후원자를 위한 디너콘서트

2월 3일 오후 6:30
해운대 그랜드호텔



세계적인 연주자를 가까이서 보는 즐거움 속에 기품있는 식탁으로 마련되는 후원자를 위한 디너콘서트.

프로그램

헨델/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오

베토벤/피아노 3중주 '유령' 작품 70-1 등

· 출연/백혜선, 올리비에 가르동, 안소영, 주희성(이상 피아노), 백주영, 쿄코 다케자와(바이올린), 정명화(첼로), 최은식(비올라), 김영률(호른), 찰스 나이디히(클라리넷)

입장료 균일 150,000원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연극

극단 사계 제 47회 정기공연 약속(원제:돌아서서 떠나라)

12월 9일(토)-2007년 1월 1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 SH공간소극장



박신양, 전도연 주연의 영화로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애절한 사랑이야기 '약속'의 원작인 극작가 이만희의 희곡 '돌아서서'

떠나라'를 무대화한 작품.

· 원작/이만희 · 연출/김만중
· 출연/김진욱, 황자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주)코엔(611-8518)

강풀의 순정만화

4일(목)-2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1/13일, 1/14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등장인물들의 사랑과 우정, 엇갈리는 이별과 만남을 통해 현 세대의 가벼운 사랑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담은 순정 코믹멜로극.

· 출연/오상헌, 홍성택, 손희승, 변희경, 정혜진, 권귀빈, 박경호, 김현중 외

입장료 균일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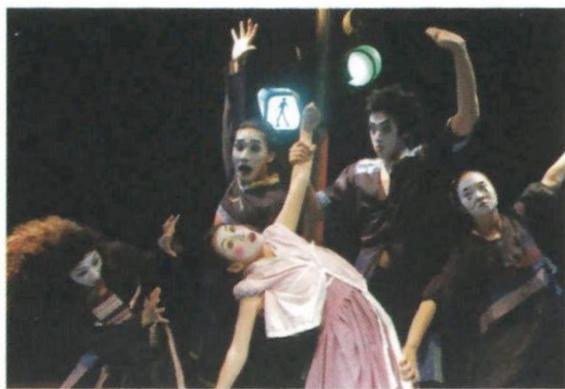
문의 (주)코엔(010-4584-8254)

연극제작소 동넱 바리데기

5일(금)-2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꾸준히 신화의 현대화 작업을 가져온 부산 연극제작소 동넱의 '바리데기'.

부모에게 버림받은 바리데기가 죽음을 앞둔 부모를 살리기 위해 겪는 고난을 그린 설화 '바리데기'를 통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 연출/심문섭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월 26일(금)-2월 15일(목)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진 후, 그 질문의 해답을 관객 스스로가 찾아나가는 열린 구성의 작품.

· 구성, 연출/오치운

· 공간연출/황경호 · 영상연출/김재식

· 출연/양효윤, 정애경, 백선우, 김성훈, 김현주, 이정형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아 동 극

번개맨의 밀림의 왕 타잔

10일-12일 수-금요일 오후 4:00,
13일-14일 토-일요일 오후 2:00,
4:30 시민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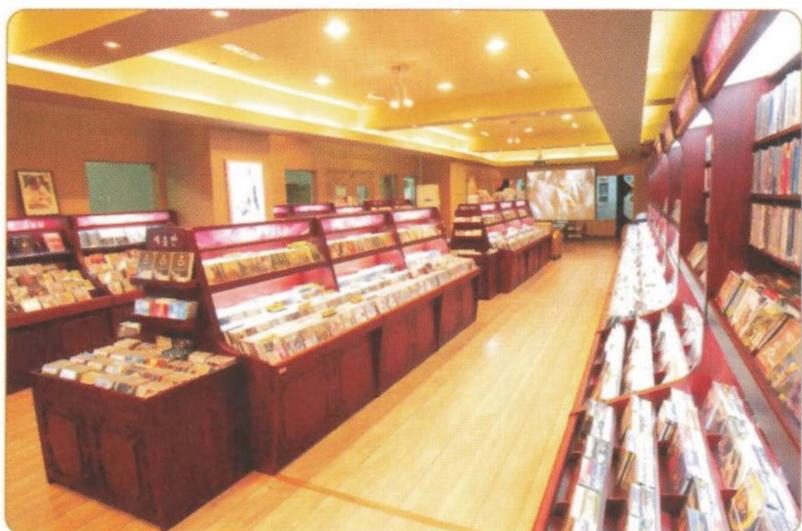
정글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대형무대와 초대형 코끼리, 기린 등 다양한 캐릭터, 환상적인 와이어액션으로 재미를 더해주는 가족뮤지컬.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A석 20,000원

문의 (주)코엔(1544-3164)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13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4일
일요일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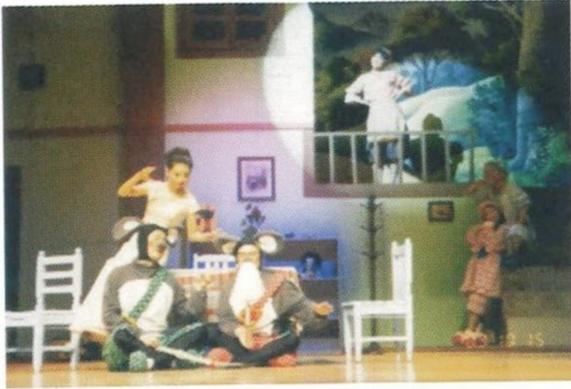
클래식음악애호가들이 바라던 클래식음반전문매장
부산에도 있습니다.

· 비바체 목요음악감상회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8:00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비바체클래식

해운대 선플라자 빌딩 1층(지하 2, 3, 4층 무료주차)

TEL 743-0003, FAX 743-3301, vivaceclassic.co.kr



계모와 언니들의 구박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신데렐라를 통해 사랑과 감동을 선사하는 가족뮤지컬.

- 각색, 연출/이제희
- 출연/최재영, 정이선, 이제희, 이한나, 박재범, 오상화, 황연주, 양수형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플러스기획(080-071-1212)

마법의 성과 피노키오의 모험

1월 16일(화)-2월 4일(일)
평일 오전 10:00(단체공연),
주말 오후 1:00(월요일, 1/19일,
2/2일 공연없음) 너른소극장

할아버지가 사는 시골로 오게된 도시소년 기호와 인형친구 피노키오가 마법의 성에서 펼쳐는 신나는 모험의 세계.

- 작/정경환
- 연출/강혜란
- 출연/강혜란, 박지영, 오영섭

입장료 일반 12,000원 · 어린이 7,000원

문의 문화기획 좋은사람(861-4654)

가족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19일 금요일 오전 10:20, 11:40,
20일-21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대극장

성탄 전날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받은 주인공이 꿈속에서 펼쳐는 신나는 모험의 세계를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호두까기 인형'.

- 극본, 연출/오계영
- 출연/이혁우, 김학준, 김태훈, 임종필, 이선화, 송찬수, 김현진 외

입장료 균일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00원 할인)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브레멘 난타 음악대

20일-21일 토-일요일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그림형제의 동화 '브레멘음악대'를 한국적 타악퍼포먼스가 가미된 년버벌 뮤지컬로 제작한 '브레멘 난타 음악대'.

- 연출/김한울
- 타악퍼포먼스 구성 및 지도/장정학
- 출연/박주현, 이민아, 박선기, 김복규 외

문의 심인 뮤지컬컴퍼니(02-304-2690)

마당놀이극 흥부와 놀부

27일-28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편곡한 음악에 우리 전통놀이를 가미한 어린이 마당놀이극.

- 각색, 연출/곽동근
- 출연/한미선, 김기환, 왕상희, 김정윤, 조강현 임동욱, 김선영 외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지원기획(622-5744)

캐릭터뮤지컬 빨간코 알루

27일 토요일 오후 2:00, 4:00,
28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대교 어린이TV에서 방송되어 친숙한 캐릭터 빨간코 알루와 다루, 까루가 밤을 무서워하는 아이 한별이와 함께 밤하늘에 사라진 달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별나라 여행.

- 출연/최지은, 김경환, 박정은, 유희중, 정선미, 박계환, 권미나 외

입장료 일반 25,000원 · 어린이 20,000원
(12/31일까지 예매시 20% 할인)

문의 원스테이지(1588-0881)

영학

시네마테크 부산 2007년 첫 기획전

일본 모던 시네마의 불꽃 이치가와 곤 & 마스무라 야스조 특별전

4일(목)-21일(일) 평일 오후 1:00,
3:00, 5:00, 7:00 시네마테크 부산



2차대전 이후 일본사회에서의 여성을 극한까지 탐구한 시네아티스트 이치가와 곤과 그의 조감독 출신 마스무라 야스조 특별전.

이치가와 곤 '문신' 베니스영화제에서 산지오르지오상을 수상한 '버마의 하프'를 비롯 '들불', '붉은 천사' 등 전쟁의 참상을 통해 인간본능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 이치가와 곤과 '열쇠', '만지', '문신' 등 에로티시즘 속에 투영된 인간의 욕망을 담은 마스무라 야스조의 대표작 등 15편이 상영된다.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행사

런던카니발

2006년 12월 20일(수)-2007년
2월 20일(화)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입장료 일반 15,000원 · 중학생 12,000원
초등학생(어린이 포함) 10,000원

문의 런던카니발(740-3415)

JJ 매직 콘서트

6일-7일 토-일요일 오후 6:30
시민회관 소극장



마술개그, 탭댄스매직, 매직빠어로, 일루전 매직 등 환상적인 마술의 세계를 선보이는 국내 최초 마술그룹 JJ가 마련한 매직콘서트.

· 출연/박종원, 이준형, 정병구, 황철주, 최명진, 고재영, 유재중, 신현재, 박준영, 김영민

· 게스트/소프라노 김현진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박준영(011-9038-8393)

제 2회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17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부산에 새롭게 탄생한 문학클럽 '알바트로스 시낭송회'가 마련한 시낭송회 및 음악가 초청무대.

· 시낭송/강문숙, 정영일(시인), 권기하, 조숙희(전문 시낭송가) 외

· 연주/안기영(민중가수), 박경원(바리톤), 김찬식(색소폰)

· 기획 및 음악연출/김옥균

입장료 무료

문의 영광도서(816-9500)

전 시

인상파 거장전

9월 9일(토)-1월 7일(토)
부산박물관

· 관람시간/오전 9시~오후 6시(1/1일, 매주 월요일 휴관)

· 전시설명/평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어린이 5,000원

문의 KNN(850-9696)

꿈꾸는 화장실展

10월 24일(화)-2007년 4월 1일(일)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 관람시간/오전 10시~오후 6시(1/1일, 매주 월요일 휴관)

입장료 일반 2,000원 ·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

문의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055-340-7000)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다섯번째 특별전 '아름다운 바다' 수중사진전

12월 1일(금)-2007년 2월 11일(일)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특별전시실

수중사진동우회 '샬빛'이 촬영한 아름다운 수중사진 작품과 수중 촬영장비 등을 만나

볼 수 있는 특별전.

· 관람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입장료 일반 2,500원 · 청소년 15,000
12세 이하 어린이 무료

문의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553-4944)

부산근대역사관 특별교류전

독일인 헤르만 산더의 여행 -1906~1907 한국·만주·사할린

12월 9일(토)-2007년 2월 25일(일)
부산근대역사관 기획전시실

독일인 헤르만 구스타프 테오도르 산더가 1906년부터 1907년까지 우리나라와 만주, 사할린 등을 여행하며 남긴 촬영사진, 엽서, 보고서 등 300여점이 전시되는 특별전.

· 개관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근대역사관(253-3845~6)

2006 부산롯데아트페어

아름다운 공간, 아름다운 그림 Living Art Room

12월 15일(금)-2007년 1월 8일(월)
롯데화랑 부산점, 롯데화랑 명품관

문의 롯데화랑 부산본점(810-2328)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재불한국작가전 시간의 흐름에서展

12월 16일(토)-2007년 2월 11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시실

· 참여작가/김성수, 안중대, 전강옥, 한명옥, 한순자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18)



신한은행 · 신한카드와 함께하는
부산아쿠아리움

북극탐험전

기간 : 1/5~3/18

올 겨울 최고의 체험 이벤트!
이색적인 북극체험

개설매 체험 / Petting Zoo / 이글루 만들기

눈앞에 펼쳐질 극지방 생태계!

살아있는 북극생물 전시

생생하게 느껴보는 북극세계!

눈내리는 바다속 북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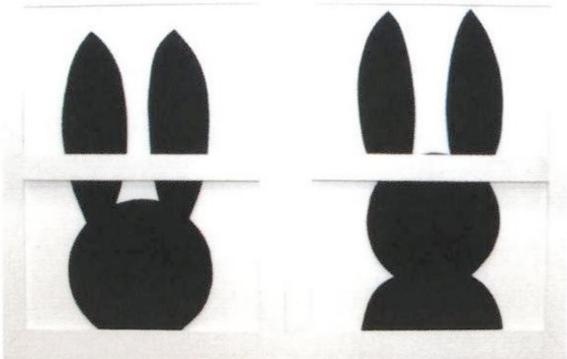


부산아쿠아리움
www.busanaquarium.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행사 및 예약 문의 : 051-740-1700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젊은시각 새로운 시선
2006展

12월 16일(토)-2007년 2월 19일(월)
부산시립미술관 2층 소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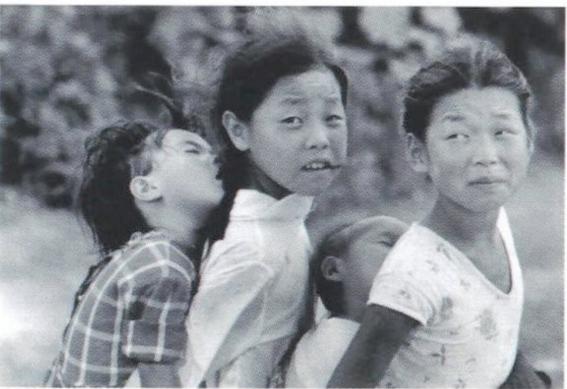
박영선 作 '흠쳐보기 1'

1999년부터 부산, 경남지역의 신인작가 발굴을 목적으로 개최해온 기획전. 독창성과 실험정신에 중점을 두어 선정된 강태훈, 박영선, 손현태, 임종광의 작품이 전시된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18)

최민식 사진展

12월 21일(목)-2007년 2월 19일(월)
용두산미술전시관



리얼리즘 사진의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는 사진작가 최민식 작품전.

문의 용두산미술전시관(244-4228)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유토피아-이태리 판화
400년展

12월 22일(금)-2007년 2월 19일(월)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시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와 루벤스, 터너 등 서양미술사의 대가들의 작품을 당대나 후대에 판화로 제작한 작품 113점 전시.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18)

동방묵운(東方墨韻)
한·중 국제서화교류전

1월 7일(일)-1월 14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4)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인도현대미술-Hungry God展

1월 12일(금)-2007년 2월 19일(월)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시실



다양하지만 현대미술에 대한 아주 독특한 인도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12명의 인도 현대미술가 초대전.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18)

서기문 초대전

1월 16일(화)-2월 4일(일)
갤러리 예가



전남대학교 미술교육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8차례 개인전을 가진 바 있는 서기문은 한국수채화공모전(1997년)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동아일보 신춘문예(2001년) 미술평론부문에 당선된 바 있다.

문의 갤러리 예가(624-0933)

영광도서갤러리 개관 9주년 기념 기획전
공간의 시학

1월 16일(화)-2월 11일(일)
영광도서갤러리



김정원 作 '일출'

사진을 전공한 프로와 사진애호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4)



눈부신, 너무나 눈부신. Watercolor on paper

서기문 초대전 2007. 1. 16(화)~2. 4(일)

전남대 미술교육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8회, 단체전 30여회
한국 수채화 공모전 대상(1997)
동아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당선(2001)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센터 3층
문의 : 갤러리 예가 (T.624-0933)
www.yehga.co.kr/한글도메인:갤러리에가

Recommended Performance in January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07 New year's concert

5th(Fri)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and its Principal conductor, Alexander Anissimov are opening the new year. They are preparing exiting repertoires with anticipation for the new year. We have to just listen, and they will lead

us to hopeful future.

Program

W.A.Mozart/Overture to 'Die Entfuhrung aus dem Serail' K.384
C.Saint-Saëns/Symphonic Poem 'Danse macabre' in g minor op.40
F.Suppé /Overture to 'Light Cavalry'
C.Gounod/'Ah! je ris(Jewel Song)' from 'Faust'
P.Mascagni/Intermezzo to 'Cavalleria Rusticana'
J.Strauss/Persian March op.289, Emperor Waltz op.437
G.Dinicu/Hora Staccato (Arr. : M.Nakariakov)
Kim Dongjin/New Arirang

P.I.Tchaikovsky/'1812' Festival Overture in Eb Major op.49 etc.

· Con/Alexander Anissimov · Violin/Yim Jieun
· Soprano/Park Jeongwon · Trumpet/Dmitry Lokalenkov

Ticket : 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For More detail : 607-6101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Winter Dreams'

12th(Fri)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In the depth of the winter, we are likely to miss something warm. How about the melody of the viola?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invites the Korean best violist, Choi Ensik. You could enjoy a sweet and mild winter with them.

Program

A.Schnittke/Viola Concerto
P.I.Tchaikovsky/Symphony No.1 in g minor 'Winter Dreams' op.13
· Con/Alexander Anissimov · Viola/ Choi Ensik

Ticket : 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For More detail : 607-6101

Vienna Boys Choir 2007 Tour in Korea

14th(Sun) 5:0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Vienna Boys Choir is famous for the history of more than 500 years. Many greatest artists such as Schubert, Haydn and etc. worked with it. Beethoven had played the play himself for it and Wagner, Liszt, and

Johann Strauss had offered their works for it. This is the chance for meeting of the top choir in the world.

Ticket : VIP 88,000Won · R 77,000Won · S 66,000Won · A 44,000Won

For More detail : 1588-4430

The 3rd Busan Music Festival

Jan. 21st - Feb. 4th, Busan Cultural Center and around Haeundae Grand Hotel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BMF) has been established as a representative musical event of Busan which orients providing concerts. BMF is a chamber music-oriented festival where the world's best

performers work together to create a perfect ensemble and show and instruct their excellent skills to participatory students through Music Academy.

Through the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ordinary lovers of music will be able to meet the world's best musicians and experience special impressions from chamber music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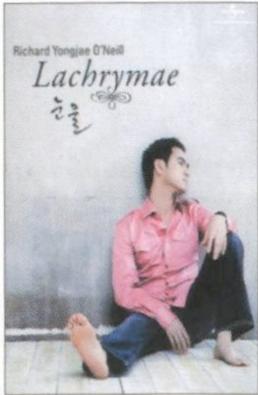
Program

- Jan.23rd Busan Symphony Orchestra with BMF Star Player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 Jan.25th Opening Concert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 Jan.27th Family Concert(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 Jan.30th Busan Sinfonietta with BMF Star Player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 Jan.31st Series of Rising Stars from Busan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 Feb.1st Festival Concert (Busan Cultural Center Main Hall)
- Feb.2nd Student concert with Professor(Grand Hotel)
- Feb.3rd Dinner Concert for supporters(Grand Hotel)
 - Music Director/ EnSik Choi
 - Piano/ HaeSun Paik, Claudio Martinez Mehner, Oliver Gardon , Hee-Sung Joo
 - Violin/Pierre Amoyal, Lucy Stoltzman, Kyoko Takezawa, Ju-Young Baek
 - Viola/EnSik Choi, Ohyama Heiichiro, Paul Coletti
 - Cello/Myung-Wha Chung, Colin Carr, Paul Marleyn
 - Clarinet/Charles Neidich
 - Horn/Young-Yul Kim
 - Music Academy professor/So-Yeon Ahn
 - Busan Sinfonietta(Leader/Young-Hee Kim)
 - Rising Star from Busan- Pianist Oh Hyeon Jung

For More detail : 747-1536, 011-859-2780

(<http://www.busanmusicfestiv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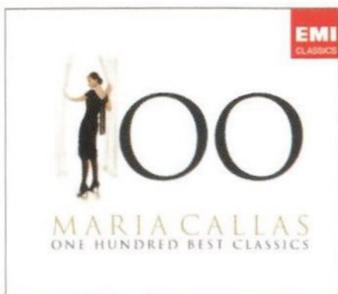
· 새로 나온 음반



리차드 용재 오닐 / Lachrymae <눈물/스페셜 리팩 앨범>

자타가 공인하는 2006년 클래식 판매율 1위의 아티스트 '리차드 용재 오닐'의 앨범 'Lachrymae (눈물)'의 스페셜 리팩키지 앨범이 드디어 발매되었다. '매기의 추억' '등대지기' 2곡의 보너스 트랙이 있고 새롭게 제작된 '섬집아기' 뮤직 비디오가 DVD로 추가되었다. 리차드 용재 오닐의 최신 화보집이 총 36페이지에 이르는 북릿이 첨부되었다.(미발표 화보집, 인터뷰 내용)

베스트 마리아 칼라스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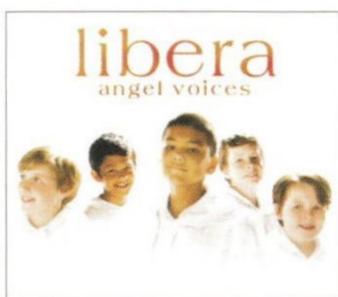


불멸의 디바 마리아 칼라스의 2007년 사후 30주기 특별 음반이 발매되었다.

<정결한 여신이여>, <방금 들린 그대 음성>, <사랑은 장밋빛 날개를 타고>, <어느 갠 날>, <내 이름은 미미>, <하바네라>,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등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으로 각인된 유명 아리아를 모두 수록한 값을 매길 수 없는 레코딩 유산이다. 특히 이 음반은 <베스트 오페라 100> 두번째 음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고의 오페라 명곡을 선곡해 초심자에게는 확실한 오페라 가이드

가 될 것이다. 마리아 칼라스에 관한 해설과 전곡 작품 해설이 완벽하게 수록되어 있다.

리베라 / 천사의 목소리



현대의 지친 영혼을 구원하는 작은 천사들 리베라!

천사 같은 목소리와 환상의 화음 리베라의 베스트음반이 발매되었다.

그 천사의 목소리로 들려주었던 히트곡을 모은 베스트 음반이며 <신세계 교향곡>을 편곡한 <Going Home>, 이번 성탄을 따뜻하게 함께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 신곡과 새녹음 <Santus>, <Ave Maria>, <Always with You> 등 그동안 리베라의 순수한 목소리로

사랑 받았던 베스트 트랙을 한자리에 모았다. 성 필립스 소년합창단 '엔젤 보이스'로 유명한 리베라는 인터넷상 가장 듣고 싶은 소년합창단 1위, TV 광고 음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합창곡 보유 1위, 인터넷 커뮤니티 최다 회원 보유 합창단으로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팬 층을 확보하고 있는 소년합창단으로 팬 클럽의 초기 수요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유현아(Hyunah Yu)의 데뷔 앨범 (모차르트·바흐: 아리아집)



108년 전통의 클래식 명가이며 성악의 최대 강국 EMI 클래식이 선택한 최초의 한국인 성악가 유현아의 데뷔 앨범 <모차르트·바흐: 아리아집>이 발매되었다.

유현아는 슬픔의 눈물을 정화해 신에게 바치는 구원의 목소리로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린다. 이 음반에는 모차르트 <편히 쉬어요, 내사랑>, <이 약으로 치료하면 곧 나아요>, 바흐 <사라져라, 슬픔의 그림자여>, <부드러운 위로> 등이 수록되어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유현아는 중학생 때 미국으로 건너가 피바디 음대를 졸업하고 1996년 볼티모어 심포니와의 협연으로 데뷔했다. 1998년 네덜란드 국제 성악 콩쿠르 입상, 1999년 뉴욕 월터 나움버그 콩쿠르 입상, 2003년 영국 볼레티 뷰토니 트러스트 상 등을 수상하였다. 2004년 카네기홀 리사이틀을 가졌고 현재 미치코 우치다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말보로 음악제, 아스펜 음악제 등에 참가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서정적인 리릭 소프라노로 한국인 정서에 맞는 청아한 목소리를 들려준다.

예술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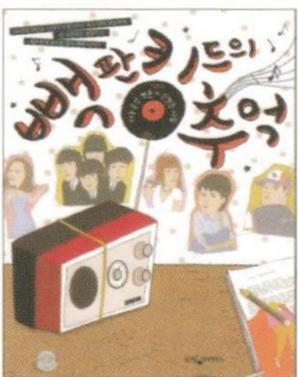
허버트 리드 지음, 임산 옮김 / 에코리브르 / 302p / 16,500원



영국의 저명한 미술비평가 허버트 리드의 예술론. 1931년 영국에서 출간된 현대 예술론의 고전이다. 국내에는 지난 1985년 문예출판사에서 미술평론가 박용숙 교수 번역으로 처음 출간된 이후 오랫동안 예술과 미학의 필독서이자 입문서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다. 이번에 정식으로 판권계약을 맺고 대안공간 '루프'와 아트센터 '나비'의 큐레이터를 지낸 임산 씨의 번역으로 새로 출간했다. 이미 80여 년 전에 씌어진 책이지만, 그 가치는 여전히 빛난다. 허버트 리드가 이 책을 쓴 시기는 그리스 고전 예술에서 시작된 서양예술사가 근대 추상예술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시기로, 예술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예술사에는 곧이어 개념미술, 예술제도론, 팝아트 등이 등장하면서 예술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선다. 허버트 리드는 말하자면 모더니즘의 격변기를 직접 대면해온 비평가이자 이론가로서, '순수' 예술의 마지막 수호자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원시예술에서 현대 추상예술까지 예술사의 흐름을 일관된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백판키드의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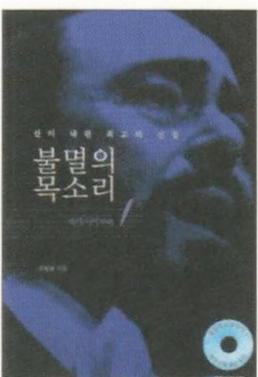
신현준 지음 / 웅진 / 287p / 10,800원



'386세대'라는 단어만큼 많이 사용되는 세대지칭 용어가 있다면 '7080세대'가 아닐까.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 말은 <친구>, <말죽거리 잔혹사>, <품행제로> 등 70~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의 흥행과 복고풍이 유행하면서 새로운 문화 코드로 인식되고 있다. 이 책 <백판 키드의 추억>은 7080세대를 '백판 키드'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름 붙인다. '백판'이란 '불법복제음반'으로 '원판'과 똑같이 찍어서 만들어낸 음반을 말한다. 현대 30대 중반 이상의 사람들은 주로 이 백판으로 음악을 경험했을 정도로 당시 백판이 끼친 영향력은 엄청났다. 백판의 유행은 싼 값이라는 경제적 이유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빈곤, 정치적 억압 속에서도 음악소비에 대한 문화적 욕구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70~80년대의 시대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상징물이 바로 '백판'이라는 존재였다. '백판 키드'의 대표주자인 대중음악 평론가 신현준은 자신의 기억 속에서 어린 시절 추억을 하나하나 꺼내어 그 시대를 함께 보낸 이들은 추억에 잠기게 하고,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추억과 낭만의 시대로 시계바늘을 돌려보자.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불멸의 목소리(남성성악가편, 여성성악가편)

유형종 지음 / 시공아트 / 392p 내외 / 각16,000원 / CD 부록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 말 그대로 듣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한다. 세계 최고의 성악가들을 남성성악가와 여성성악가로 나누어 소개하고, 그들의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CD를 부록으로 증정하는 책. 저자 유형종 씨는 경영학을 전공한 수재로 대기업 임원을 역임하였지만, 가슴속에 늘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 그 열정으로 월간 <객석>을 비롯한 여러 음악 전문지에 고전음악 관련 기사를 기고하고, 방송에서도 음악해설가로 활동했던 그는 현재 직장생활을 접고 고전음악 전업 칼럼니스트 겸 공연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2002년 3월부터 4년 반 넘게 <객석>에 '불멸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글을 엮었다. 남성성악가와 여성성악가 두 권으로 분리하여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은퇴한, 혹은 은퇴한 노가수 만을 대상으로 남녀 각 25명의 성악가를 선정했다. 각각의 가수를 소개하는 글은 짧은 평전 스타일로 구성하고 생애,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에피소드, 가창 스타일, 대표 음반을 다루어 가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는다.

더욱 다양해진 기획 프로그램

2007년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개최



부산문화회관은 2007년 지휘자 금난새와 박호성의 지휘, 해설로 '웰빙콘서트'를 마련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인 부산문화회관은 2007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산시민과 만날 계획이다. 2007년 부산문화회관은 연간 8회의 '웰빙콘서트'와 256회의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올해 부산문화회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이다. 부산일보사와 공동주최로 마련되는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는 저녁시간 공연장

을 찾을 수 없는 주부, 청소년 관객층을 대상으로 오전 11시 공연을 기획하여 보다 여유롭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음악계의 스타인 금난새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박호성 지휘자의 지휘, 해설로 유명 인사들과 다양한 테마에 맞는 이야기 음악회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간단한 다과를 준비, 공연장에서 점심 모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2007년 첫 브런치 콘서트는 2월 8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로 서막을 연다. 금난새는 2007년 한해 동안 5회의 무대를 통해 클래식 공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관객층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3월과 6월, 10월 3회의 공연을 갖는다. 지휘자 박호성은 토크 형식의 국악이야기 공연을 통해 시대에 맞게 변하고 있는 우리 국악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는 계획으로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족 종합건강검진 10% 할인

부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병원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은 부산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한발 앞서가는 큰 병원으로 새롭게 도약·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내과 | 소화기내과 | 소아과 | 신경과 | 정신과 | 피부과 | 외과 | 흉부외과 | 정형외과 | 성형외과 | 신경외과 | 산부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치과 | 가정의학과 | 재활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방사선과 |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1330

• 대표전화 : 051)507-3000 • Fax : 051)507-3001 • 홈페이지 : www.busanmc.or.kr

부산시립무용단 무용교실 강습안내

- 제 27기 시민무용교실, 제 16기 어린이 한국 춤 교실 -

정중동의 미가 살아 있는 우리 춤에는 조상의 얼이 살아 있습니다.
2007년 신년에는 우리 멋이 살아 있는 우리 춤을 한번 배워 보는 것이 어떨까요.



제27기 시민무용교실

- 강습기간 : 2007.1.22(월) ~ 1.26(금) 13:00~17:00 (5일간)
- 강습장소 : 국제회의장(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층)
- 강습내용 : 살풀이춤(13:00~15:00), 소고춤(15:00~17:00)
- 강 사 : 살풀이춤 - 홍기태(수석안무자), 서현미(수석단원)
소 고 춤 - 이윤희(훈련지도자), 김병주(부수석단원)
- 대 상 : 일반 시민 및 교사 (각 반 20명)
- 준 비 물 : 살풀이춤-(수건), 소고춤-(소고)
- 접수기간 : 2007. 1.8(월)~1.12(금) (5일간) (평일 09:00-18:00)
- 수 강 료 : 20,000원
- 접수 및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 사무실(051-607-6118, 6120)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1/22(월)~25(목)	13:00-15:00	살풀이춤	국제회의장
	15:00-17:00	소고춤	
1/26 (금)	13:00-14:00	강습결과발표회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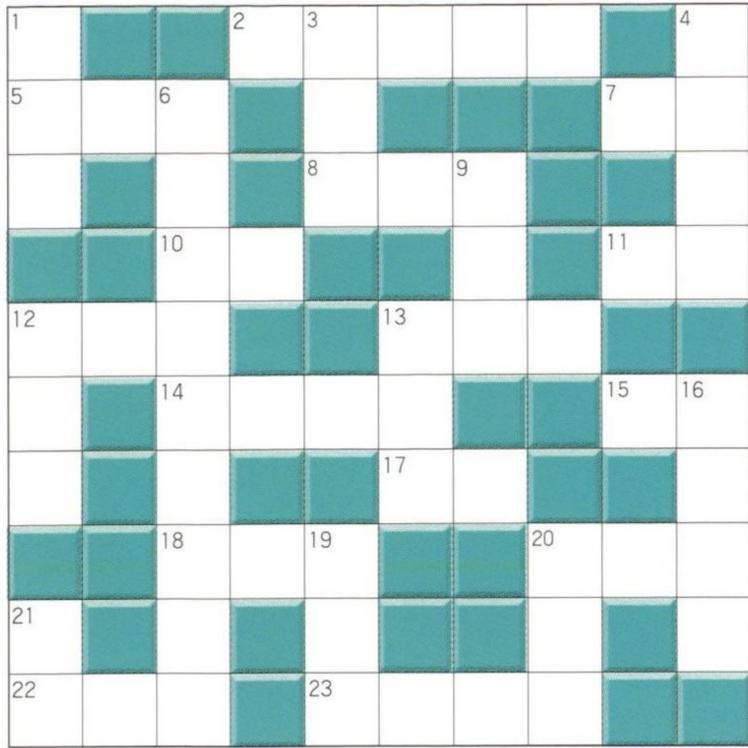


제16기 어린이한국춤교실

- 강습기간 : 2007.1.22(월) ~ 1.26(금) 10:00~12:00(5일간)
- 강습장소 : 국제회의장(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층)
- 강습내용 : 어린이 탈춤(10:00~11:00), 꼭두각시춤(11:00~12:00)
- 강 사 : 어린이 탈춤 - 홍기태(수석안무자), 서현미(수석단원)
꼭두각시춤 - 이윤희(훈련지도자), 김병주(부수석단원)
- 대 상 : 초등학생 어린이 (각 반 20명)
- 준 비 물 : 어린이 탈춤-(한삼), 꼭두각시춤
- 접수기간 : 2007. 1.8(월) ~ 1.12(금) (5일간) (평일 09:00-18:00)
- 수 강 료 : 10,000원
- 접수 및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 사무실(051-607-6118, 6120)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1/22(월)~25(목)	10:00-11:00	어린이 탈춤	국제회의장
	11:00-12:00	꼭두각시춤	
1/26 (금)	13:00-14:00	강습결과발표회	소극장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문제

2. 캐나다와 미국 국경사이에 있는 폭포. 한때 세계 제 1의 폭포라고 하였으나 이후 이과수폭포와 빅토리아폭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현재는 북아메리카 제 1의 폭포로 불린다.
5. 고려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는 합천의 사찰.
7. 황해도에 위치한 평양, 남포에 이은 북한 제 3의 도시. 옛 이름 송도.
8. 조선 중기의 유학자. 황진이, 박연폭포와 함께 개성을 대표한 송도3절로, 황진이의 유혹을 물리친 일화로 유명하다.
10. 품질이 좋은 낫쇠를 녹여 부은 다음 다시 두드려 만든 그릇. ○○유기
11. 다국적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하나. 소설 '걸리버여행기'에 등장하는 인종 이름에서 그 명칭을 따왔다.
12. 독특한 미적감각을 지닌 팀 버튼 감독의 대표작으로 조니 뎀, 리노나 라이더가 주연을 맡았다.
13. 판소리 여섯바탕 중 하나. 토끼타령.
14. 한용운 시인의 대표작. '님은 갔습니다. 아 나의 사랑하는님은 갔습니다~'

15. 헤라의 저주로 다른 사람의 말만 반복하다가 마침내 목소리만 남아 메아리가 되었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숲과 샘의 님프.
17. 1997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에 있는 조선 후기의 성벽. 돌과 벽돌을 혼용하고 거중기 등의 기계를 활용하는 등 다른 성곽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을 도입한 과학적인 구조물이다.
18. 영월이 자랑하는 경승지로, 맑은 물과 주변의 경치가 수려하다. 예로부터 물고기가 많아 '강물속에 뛰노는 물고기들의 비늘이 비단같이 빛난다' 하여 부쳐진 이름이다.
20. 경주시에 있는 천마총에서 나온 말다래의 뒷면에 그려진 그림. 순백의 천마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모양을 그린 것이다.
22. 노루의 일종으로, 몸의 길이는 90cm로 작으며 암수 모두 뿔이 없다.
23. 닭의 무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의 학이란 뜻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을 이르는 말.

세로문제

1. 2006년은 병술년, 2007년은 ○○○.
3. 이력을 적은 문서.
4. 1월 20일과 2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창작뮤지컬로, 동양 최초로 미국 브로드웨이 링컨센터와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에 올려져 화제가 된 작품이다.
6. 1935년 발표된 주요섭의 단편소설. 여섯 살난 옥희의 독백을 통해 과부인 어머니와 사랑방 손님과의 미묘한 애정심리를 서술한 작품이다.
9. 서울 정동에 있는 조선시대의 궁궐.
12. 벽과 천장의 곡선미를 살리고 섬세한 장식과 색채를 사용하는 스페인의 건축가로, 사그라다 파밀리아교회와 미로와 같은 구엘공원, 구엘교회 제실 등이 유명하다.
13. 먹으로 짙고 얇음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 먹그림.
16. 명탐정 셜록 홈즈를 탄생시킨 영국의 추리소설가.
19. 영화 '왕의 남자'에 등장하는 임금.
20. 이청준의 단편소설 '선학동 나그네'를 원작으로 한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연출작. 서편제의 속편으로 알려져 있다.
21. 농악에 쓰는 작은 북, 양면을 가죽으로 메웠으며 대개 자루 손잡이가 달려있고 나무채로 친다.

지남호 정답

백	조	의	호	수		김	소	월
남			두	웰	빙		머	
준			까	컴		어	즈	버
	사	춘	기		투	우		자
	씨		인	사	동		살	풀
훈	남		형		막	걸	리	너
	정	발			골		에	모
토	기		도	루			르	놀
스		녹		돌	고	래		로
카	덴	차		프			그	리

- **큰집 식사권**
정수희(영도구 동삼1동) 김순자(부산진구 가야 3동) 이남수(부산진구 연지동) 김창주(연제구 거제 3동) 정조자(동구 초량3동)
- **산마루컴터(구 돈방불패)**
오정국(부산진구 전포2동) 양정이(북구 화명동) 장귀하(해운대구 우동) 강휘빈(해운대구 반송 3동) 신주훈(남구 용당동)
- **가마골소극장 초대권**
고원상(남구 대연3동) 성영화(동래구 칠산동) 정기모(기장군 기장읍) 김나진(북구 화명3동) 하금자(수영구 망미1동)
- **동보서적 도서교환권**
배혜영(사하구 하단동) 이미옥(사하구 하단1동) 박예원(동래구 온천3동) 김혜경(금정구 부곡3동) 서미애(해운대구 재송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음식점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시 담당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더욱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산마루 컴퓨터

- **찜갈비**
- 삼계탕, 돌솥비빔밥
- 30초 완성 참숯판구이 삼겹

UN로타리 문화회관 영빈관 앞 **예약문의: 611-4040**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7년 1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KOREA

부산문화회관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1월 13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프로그램

대취타(등채/김수일 · 태평소/김용우, 김경수 · 나각/진형준, 최영훈 · 나발/황두호, 최재호
· 용고/최오성, 방병원 · 자바라/엄익준, 강상호 · 징/송강수)

거문고 독주 '신쾌동류' (거문고/한정임 · 장구/신문범)

중광지곡 중 '염불, 타령' (대금/강영진 · 피리/권미정 · 해금/최윤희 · 단소/김수일 · 양금/장미진
· 가야금/김혜진 · 거문고/이대하 · 장구/이장우)

판소리(판소리/정선희 · 고수/송강수)

사물놀이(꽁과리/이주현 · 장구/최오성 · 징/전학수 · 북/신문범)
· 해설/백규진

1월 20일 토요일 오후 4:00 중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라장조 작품 136

모차르트(롱펠드 편곡)/작은 별

타코/푸팅 온 더 리츠

오펜바흐/재클린의 눈물

로저스(와슨 편곡)/사운드 오브 뮤직 하이라이트

번스타인(블라 편곡)/'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 '아메리카'

한국민요(김한기 편곡)/새야 새야 파랑새야

윤현진(김한기 편곡)/울챙이와 개구리 등 수곡

· 지휘 · 해설/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연주/김은정(바이올린), 최방주(바이올린), 한아름(바이올린), 양혜원(바이올린), 최영화(비올라), 박소영(비올라),
전수정(첼로), 전지윤(첼로), 임미형(베이스), 이은정(피아노)

1월 27일 토요일 오후 4:00 중극장 부산시립무용단 마당춤판 '男공쥐 vs 팔쥐'

2006년 여름마당춤판 무대를 통해 선보여 많은 호응을 받은 '男공쥐 vs 팔쥐' 를 겨울방학을 맞고 있는 청소년들과 가족들을 위해 새롭게 선보인다. 기존 공쥐, 팔쥐와 다르게 남자 공쥐, 팔쥐를 등장시켜 한바탕 재미있는 웃음을 선사한다.

작품구성

1막. 어머니를 여윈 공쥐- 공쥐의 탄생, 생모의 죽음 - 팔쥐 엄마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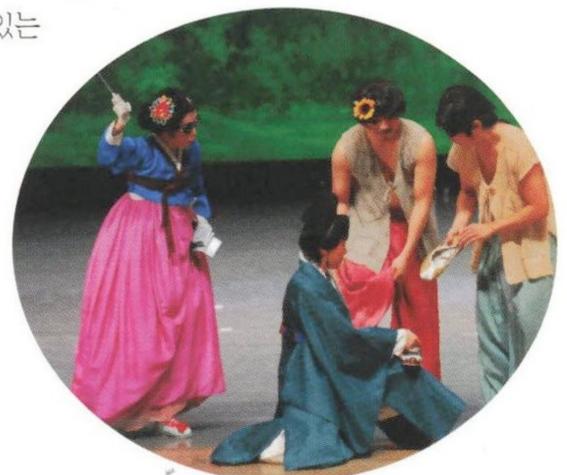
2막. 공쥐의 시련- 팔쥐 엄마의 구박, 공쥐의 미션 임파서블, 공쥐, 마침내 남사당 놀이에 가다

3막. 공쥐의 인생 역전 대 드라마-공쥐와 공주님의 사랑 - 갓신 주인을 찾소!, 얼씨구 좋구나

피날레, 북의 대합주

· 안무, 구성/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 출연/부산시립무용단 전단원



· 입장권 : 무료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12월 우포늪 기행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 떠난 창녕 우포늪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2월 테마여행지는 창녕 우포늪.

12월 8일 출발을 앞두고 전날까지 내린 비와 추위 때문에 여느 여행 보다 불참자가 많아 안타까웠다. 오전 8:40 부산시립무용단 흥기태 수석 안무자를 비롯 정기회원과 정기회원 가족 등 31명이 '우포늪'으로 향했다. 1억 4천 만 년 전 형성된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 늪지 우포늪은 경남 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대합면 등 3개 면에 걸쳐 있고 둘레가 7.5km, 전체 면적이 70여만 평에 이른다.

6월에 이어 다시 찾은 우포늪기행은 우리가 보존해야 할 자연과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먼길을 날아온 철새들의 생태를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철새가 살 수 없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없다'는 우포생태학습원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으며 모두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살을 에는 차가운 바람속에서 만난 아름다운 새들은 추위를 잊게 했을 정도. 우리는 백로, 왜가리, 천둥오리, 기러기, 저어새 등 조류도감에서 만날 수 있는 희귀 철새들을 관찰했다. 최연소 참가자인 3살 재원아도 눈앞에 펼쳐진 철새 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하은이는 학교에 두고 온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새들이 보일 때 마다 꼼꼼하게 메모하는 열성을 보였다. 굵은 날씨와 추위에도 다행히 전 세계에 1,600마리가 살고 있다는 천연기념물 저어새 4마리가 망원경에 잡혀 귀한 자태를 감상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철새 탐조 이후 이어진 부산시립무용단과의 만남. 이날은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과 회원이 함께 어우러져 강강수월래를 했다. 우리 전통문화이지만 시간, 장소 등의 제약 때문에 자주 해볼 수 없었던 터라 회원들의 열의가 대단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청어엮기와 청어풀기, 손치기, 발치기 기본 동작을 배워 음악에 맞추어 강강수월래를 하며 겨울을 녹였다. 강강수월래에 이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액을 물리치는 장승 솟대 만들기로 마무리 한 우포늪기행은 몸과 마음이 따뜻해진 겨울여행으로 오래도록 기억된다.

(테마여행협찬/과란여행)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정기회원 여러분들에게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2월 9일(금) 밀양 평리마을 전통체험



밀양 표충사와 평리 팜스테이 마을을 함께 둘러보는 겨울여행.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10:00 밀양 표충사 도착 및 관람

11:30 밀양 표충사 출발

12:00 밀양 평리마을 도착 및 중식

13:00 전통 먹거리 만들기 연날리기 및 짬뽕공예

15:00 작은음악회

16:00 밀양 평리마을 출발

(※ 체험비 10,000원)

※ 테마여행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1월 당첨자

▶ 1월 5일(금)

비봉내 팜스테이마을
대나무 산책 및 굴구워먹기



■ 신규가입 당첨자 명단(10명)

이초우(남구 용호동)
김범선(부산진구 당감 4동)
김성영(동래구 복천동)
이원경(북구 만덕 2동)
김명희(수영구 망미 1동)
한소영(수영구 망미 1동)
양윤복(동래구 사직 1동)
정지영(부산진구 부암 3동)
이태곤(해운대구 좌동)
김미량(동래구 온천 3동)

■ 기존가입 당첨자(엽서) 명단(10명)

이인호(부산진구 초읍동)
조경순(남구 용호동)
서미애(해운대구 재송동)
이정욱(동래구 온천 3동)
이옥진(사상구 모라 2동)
김민주(사상구 주례동)
엄명주(사상구 엄궁동)
최경자(수영구 망미 2동)
김태기(해운대구 우동)
이청자(연제구 연산 4동)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문화생활의 필수품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카드결제 가능
- 다양한 할인혜택과 부대서비스 제공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제도가 알뜰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1년 25,000원 한번 가입으로 예술단 공연 5회 관람과 부산문화회관에서 주최하는 기획공연 할인,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화로 공연 예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시내 전 공연장의 정보와 문화예술계의 동향 등을 담은 '예술에의 초대' 월간지를 매달 무료로 발송해 드리며, 부산시립예술단에서 마련하는 모든 무료 공연에 최우선으로 초대합니다.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 단체의 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주최측과 협의된 공연에 한함).
-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특별기획공연 입장료를 20~50% 할인해 드립니다.
- 50명 이상 단체 가입시는 가입 총액의 10%가 할인되어 관람료가 더욱 저렴합니다.
- 청소년 푸른회원은 20%, 장애인(1~3급)·경로우대(만 65세)·국가유공자 사랑회원은 가입회비가 50% 할인되어 더욱 저렴합니다.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들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 아쿠아리움, 별난물건 박물관, 필하모니, 가마골소극장 등 이용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 부산광역시의료원 건강검진시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007년 3월까지)



◆ 사용방법

- 공연 예약(전화, 홈페이지) 후 당일 공연장에서 카드를 제시하면 관람인원을 체크한 후 좌석권을 드립니다.
- 회원카드는 정해진 관람횟수에 한해서는 타인과 함께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일행이 있으신 회원님들은 입장권을 따로 구입하실 필요없이 정기회원 출입문으로 같이 입장하셔서 일행 수만큼 체크하시면 됩니다. 단 회원기간 이후의 남은 관람횟수는 무효가 되므로 1년 내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예약한 티켓은 정기회원 전용창구에서 교환하시면 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 **어떤 공연을 볼 수 있습니까?** =입장료가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예술단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은 회원 카드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입장료가 2,000원인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공연은 현장 매표하시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 **공연 관람 예약을 하고 관람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은 공연 예약을 하고 취소 연락도 없이 관람을 하지 않는 경우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부득이한 경우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 공연 당일 오전까지도 취소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예약을 하고도 오지 않는 일부 회원 때문에 다른 회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예매문화 정착을 위해 공연 예약 취소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정기회원가입회비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교통편 • 버 스 : 25, 51, 51-1, 68, 93, 134

• 지하철 : 대연동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도보 15분 거리

■ 셔틀버스운행 • 출 발 지 : 청심꽃조경 앞(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100m 지점

• 출발시간 : 월~금요일 오후 7시(무료)



방콕 / 파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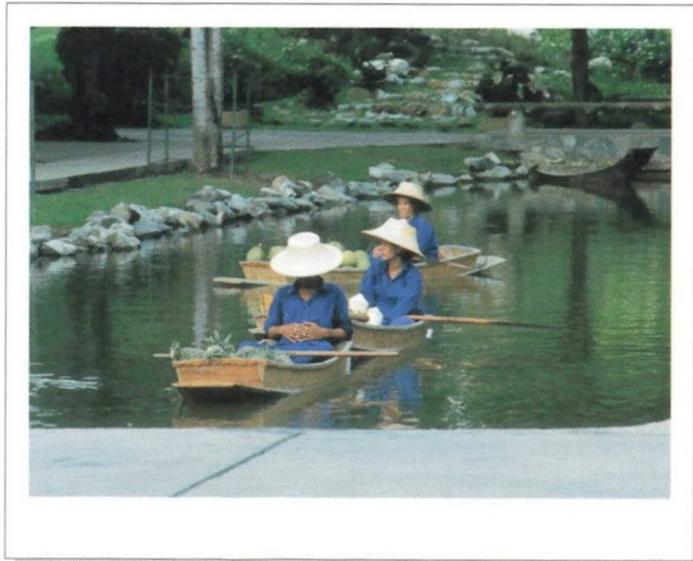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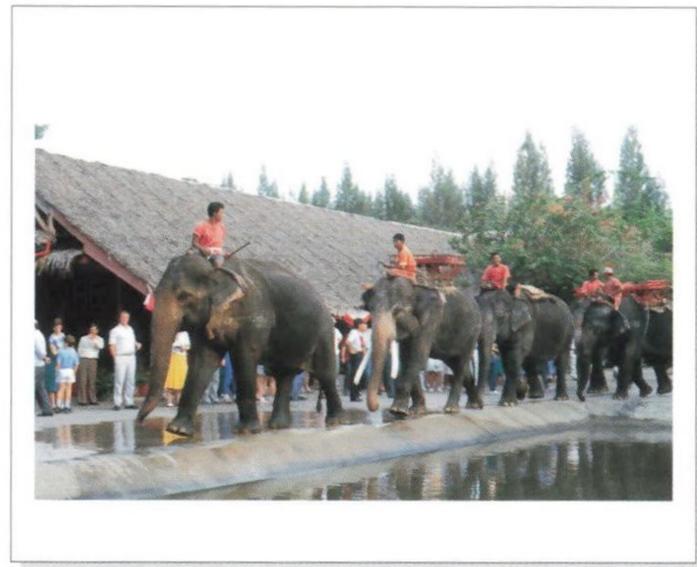
출발일자별 10명 한정

방콕/파타야 5일 ₩479,000

특전 항공, 각종TAX, 기사,가이드TIP, 특급호텔3박, 알카자쇼, 미니시암, 수끼, 씨푸드, 코끼리트래킹, 전통안마 1시간

화요일 출발상품 20:00 출발 / 07:30 도착(3박5일)

목, 토요일 출발상품 09:00 출발 / 18:30 도착(3박4일)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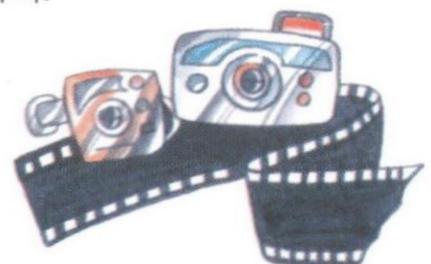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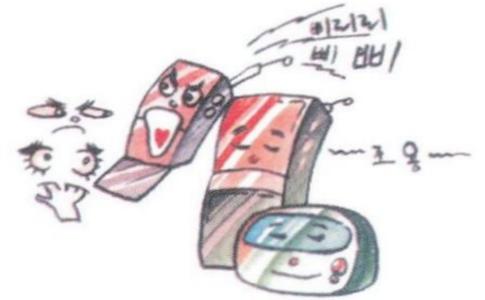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연장 신사, 숙녀

- ◇ 입장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좌석번호를 확인하여 앉습니다.
- ◇ 공연 중에 지정좌석을 찾으실 때는 뒤에서 기다리거나 빈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한 곡이 끝나면 조용히 자리를 찾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발소리, 기침소리, 부스럭대는 소리, 수근거리는 소리까지도 옆사람에게 방해가 되니 조심합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신발을 벗거나 무릎 위에 발을 올리지 않습니다.
- ◇ 남의 앞을 지날 때는 몸을 숙여 남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 연주중에는 들락날락하거나 뛰어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 옷차림은 가능한 정장이나, 양전한 복장을 합니다.
- ◇ 껌을 씹거나, 음료수·음식물 등을 반입하여 드시면 안됩니다.
- ◇ 휴대폰, 호출기 등 소리나는 물건은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입장합니다.
- ◇ 공연시작 5분전까지는 입장하여 자리에 앉습니다.
- ◇ 냄새나는 음식을 드셨을 때는 옆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입을 씻고 입장합니다.
- ◇ 7세이하의 어린이는 공연장내에 동반하지 않습니다.(공연장 3층 어린이 놀이방 활용)
- ◇ 화환이나 꽃다발은 입장시 로비에 보관하셨다가 공연후 증정하도록 합니다.
- ◇ 앵콜 연주까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일어서거나 나가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 ◇ 공연장내 휴지나 인쇄물(프로그램, 좌석권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연주자의 연주에 방해가 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상인개
별난 물건 박물관
10% 할인권

(1매 4인 사용가능)

대상 : 할인쿠폰 소지자 또는 예술단 정기회원카드 제시자

기간 : 2007년 6월 30일까지

해운대 스펀지 3층 TEL: 051-740-4858



Sinc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수준높은 감상을 위한 우리의 마음

- ◇ 혼신의 힘으로 작품에 임하는 예술가의 열정과 관객들의 진지한 감상태도가 같이 만날 때 비로소 예술작품은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 ◇ 모처럼 공연장을 찾았다가 공연장 예의를 무시한 일부 관객들의 비문화적 태도로 감상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올바르게 감상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 숨소리마저 죽이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경의의 마음으로 감상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예술 작품을 함께 완성시켜가는 성숙하고 수준높은 관객의 역할입니다.
- ◇ 부산문화회관은 이러한 공연장 예의를 지키며, 진정 예술을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려고 하는 분들을 가장 소중한 관객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고자 합니다.
- ◇ 부산문화회관이 품위있고 격조높은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음악회에서는 언제 박수를 쳐야 할까?

- ◇ 박수를 언제 쳐야 할 지 모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때를 기다렸다가 박수를 쳐도 늦지 않습니다.
- ◇ 교향곡이나 협주곡 등 악장의 수가 3~4악장으로 되어 있는 곡은 모든 악장이 끝난 후에 박수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 ◇ 성악연주회의 경우는 한 작곡가의 곡이 모두 끝났을 때, 연주자가 3~4곡씩 묶어 부를 때는 다 들은 후 박수를 치면 됩니다.
- ◇ 오페라 공연의 경우에는 막이 내릴 때 치면 되고, 곡이 진행중에도 그 오페라의 대표적인 아리아나 혹은 유명한 아리아를 열창하고 나면 환호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 예의입니다.(단, 오케스트라의 후주가 끝난후에)
- ◇ 레퀴엠(진혼곡)은 연주가 끝나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추모의 뜻으로)
- ◇ 앵콜곡을 듣고 싶을 때는 지휘자 또는 연주자가 연주를 다 마치고 인사할 때 박수와 브라보라는 말로 요청합니다.(휘파람이나 고함소리를 내지 않는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

겨울몽상



지휘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비올라
최은식

2007. 1. 12(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협찬 ForAD (주)포에드

- 연주곡목
 - 슈니케 - 비올라 협주곡
 - 차이코프스키 - 교향곡 제1번 사단조 「겨울 몽상」 작품13
- 공연문의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 607-6101~4
 - www.bsculture.busan.kr
- 입장권 /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청심꽃조경앞(대연지하철역 5번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 100M 지점) → 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www.ticket365.co.kr

금 정/ 신나라레코드 부산대점 (부산대 앞 518-0686) 골든 악기사 (부산예고 앞 512-4295) 대연동/ 면학도서 (경성대 앞 623-9404)
 해운대/ 해운대약국 (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비바체 클래식 (선프라자 1층 743-0003) 하 단/ 향학서점 (동아대 입구 204-9381)
 남포동/ 문우당서점 (버스터미널 앞 245-3843) 남포문고 (호림빌딩 1층 245-8911~3) 덕천동/ 대한도서 (덕천교차로 332-7339)
 서 면/ 영광도서 (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동보서적 (제일은행 옆 803-8000)

新年音樂會

3색 음악회 歌舞樂

연주곡목

歌 남도민요

[흥타령,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

민요: 지수복, 김정애, 박성희, 정선희

舞 태평무 - 춤: 홍기태

살풀이 - 춤: 덕원 이운자

樂 산조합주 · 수연장지곡



집 박: 유경조(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남도민요: 지수복, 김정애, 박성희, 정선희

춤: 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덕원 이운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제 133회 정기연주회

주최 부산광역시 협찬 FORTAD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2007. 1. 25 (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인터넷예매: 에드콤, www.bsulture.busan.kr, 티켓365 ww.ticket365.co.kr 콜센터: 1588-2528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051) 607-6070 www.bsulture.busan.kr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51) 607-6110 www.bsgugag.com

